朝鮮日報
夕刊 五日(水)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十一番地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獨裁權要求에惜敗 佛內閣또總辭職

組閣한지겨우四日만에倒潰

上院議長잔氏가後繼

【電通巴里四日發】 佛蘭西 뷔송新內閣은 四日午後八時下院에서 財政獨裁權要求案에 二百六十四票 對二百六十二票라는僅少한差로써 惜敗되여 即時院內閣議를開하고 協議한結果 곳總辭職키로決定하고 即時 르부랑大統領에게 辭表를提出하엿다

【電通巴里五日發至急報】 르부랑大統領은 上院議長쥬ー르·잔·누네氏에게組閣을命하엿다는旨를公表하엿다

【電通巴里四日發】 르부랑佛大統領은 四日午前九時八分 正式으로 뷔송內閣의 總辭職을 受理하고 直時 協力內閣의 有力候補者로指目되는 라발外相, 에리오無任相及 上院議長잔·누네氏를 招致하고 個別的으로 協議하엿다

【電通巴里四日發】 佛新內閣은 最初의議會에서 傾弱하게도 敗北되여 겨우四日의 短命으로 終了되엿다

敗北한原因은 急進社會黨이 政府에對하야 議會의監督업시 財政節約의獨裁權을賦與하면다음總選擧에잇서서 國民의投票를 바들境遇에 如何한不利를 招致할는지도 알수업다하야社會黨과合流하야 全權案에 反對하엿기때문이다 (寫眞은 르大統領)

뷔송氏再組閣固辭 『잔·누네』氏가出馬

協力內閣組織이困難할時는 財政政策에關한人民投票施行

【電通巴里四日發】 라발氏는再次 르부랑大統領으로부터 다시組閣依賴를 바덧스나 固辭하고受諾치안코 뷔송氏의 再組閣이 當然하다고 建言하얏다 따라大統領은 뷔송氏를 招致하고 라발氏同席下에 再出馬를懇請하엿는데 구지辭讓하엿다 最後에 라발氏는 大統領에對하야 上院議長잔·누네氏를 推薦하고 辭去하엿다

【電通巴里四日發】 르부랑大統領은 協力內閣組織이 困難할時는 最後手段으로 議會를解散하고通貨財政政策에關한 國民의總意를問하야 新議會를成立식힌 後根本策을 確立하기로하고 這間에幾務整理의 形式으로뷔송內閣에緊急對策을 講究할覺悟이다

잔·누네氏의 受諾疑問

【電通巴里五日發至急報】 르부랑大統領으로부터 組閣命令을바든 上院議長쥬ー르·잔·누네氏는 目下健康이조치못하야 果然受諾할는지 안할는지가 疑問視되여잇다

獨裁權要求했든 宣言書內容

【電通巴里四日發】 四日午後議會에서朗讀한뷔송 新內閣의 宣言書의內容은左와如하다

大戰以來 佛國은恒常擧黨一致의內閣으로써 通貨維持、財政經濟狀態의 回復을爲하야努力하여왓다 新內閣도 亦是擧黨一致로써 通貨維持、財政經濟狀態의 回復을圖하기를 期하는바이다 바야흐로 我國의金本位制에 對한投機者의 砲擊이急迫되려한다 政府는如斯한投機를 阻止하기에 必要한全權의賦與를 要求할뿐만 안이라過去五個年間 危機에시달린佛國財政經濟의回復을 爲하야 廣汎한全權의賦與를 要求하는바이다 吾人은 右의權限으로써 技에積極的으로 財政、經濟狀態의回復을爲하야 完全한計畫을實現하기를 바라는바이다 農業方面에對하야 第一로 注意를 加할必要가잇다고 信하나商工業에對하야도 補充할必要가잇다고 思惟한다 政府는 失業者를 비롯하야其他의貧困者의 減少를圖하기爲하야 모든必要잇는 手段을講究할計劃이다 그리고 吾人은 內治外交에平和政策을踏襲하는同時에 國防問題의 考究를비롯하야相互的安全保障의 維持에努力하기를期하는바이다 吾人은 盟邦에對하야 恒常忠實하게友好關係를嚴守할것은勿論 其他의諸邦의協力도 切望한다 佛國은 恒常忠實한 國際聯盟國일것을 期하는바이다 그리고 如上의全權은 此를 既述한目的外에는 行使치안키를茲에誓約하는바이다

組閣難繼續하면 斷乎下院解散!

르브랑大統領의決意

【巴里四日發聯合】 뷔송內閣總辭職結果 後繼內閣의首班은 라발外相 엘리오無任所相等이 候次下馬評에 오르고잇다 뷔송首相에再降下하리라는觀測도有力하고 파에르리海相其他現內閣의領袖은四日夜大統領의 諮問에 應答하야 뷔송首相의 再組閣을委囑하라고 進言하엿다 르부랑大統領도 政界의 現狀에잇서 到底히强固한擧國一致內閣을 組織할수업다는見解가서면 뷔송首相에게 再組閣을命하야 同時에 共和國憲法第五篇을 援用하야 上院의勸告에 基하야 下院의解散을斷行하고即時 總選擧를施行하야法貨의危機打開를 策하게될는지도 알수업다

話題解說

滿蒙會議

只今 滿洲里(北鐵ー滿中東鐵道의 國境驛)에서는 滿洲國代表와 外蒙古政府代表가모혀 滿蒙會議를 開催中이다。 滿洲國은 一九三三年三月 中國으로부터 獨立한 國家요、外蒙古는一九二六年 亦是中國으로부터獨立한國家인데 前者가 日本의 後援을 바다가지고 帝國主義、後者가 蘇聯의後援에 依하야 社會主義共和國을 各各 建設한 事情을보면滋味잇는 對照이다。

◇ 그런데 滿蒙會議가 엇재開催되엿느냐하면 滿洲國과 外蒙古와서도 國境을接하고잇는바 昨年以來 國境問題가紛擾하게되어 國境問題를解決하고저함이다。 그中에도이會議를 促進시킨것은 昨年末부터올(貝爾湖)附近에 잇는할하(哈爾哈)廟를 中心으로兩國軍隊가 자조衝突하엿는데 滿洲國軍은 이것을 滿洲國領土라 主張하고、蒙古側은 古來로 蒙古領이라하야 互相不讓하다가 今年一月三十一日 日本軍이 武力으로 이곳을 占領함에 이르러 外蒙古는 이것을日本軍의 侵略行動이라 聲明하고日本軍當局은 當然한 領土防衛라하야 紛糾가 이러나게된것이다。

◇ 滿蒙代表는 이미 二次 會議를하얏는데 只今까지 經過로는 蒙古側이 討議議題를 國境問題에 限한것을 主張하는데 그치지안코 滿洲國은 國境問題에 限할것이아니라、永久한 平和關係에까지 미치자하고、蒙古側이 會議用語를 蒙古語로하고、通譯은 使用치안코 發言者는 自國語로 使用하며 滿洲國側은 日本語도 使用하고 首席代表에 限하자한데 對하야 滿洲國은 다만 首席代表에 限하야 發言할수잇게하자하야 爲先 前哨戰이 이러낫다

佛內閣倒潰까지

騷然튼下院本會議經過

【電通巴里四日發】 뷔송 內閣에對한 最初의下院은 四日午後三時부터 開會되엿는데 뷔송首相의 下院議長辭任手續問題를 處理한後 首相은午前閣議에서 決定한 內閣宣言을 朗讀하고 實質問을 一切뒤로돌리고 信任投票를行하기를 要求하자共產黨과社會黨의議席으로부터「沈默의支持를할수잇는가」絕叫하매 質問의許可를 求하야議場은騷然하게되엿다 그러나이에不拘하고信任投票를行한結果 三一○票對 一九二票로政府는 第一의 難關은 突破하엿다 다음에 首相은 마츰내 財政獨裁法案을 提出하야 먼저 財政委員會에 廻付하고 一時間以內에 審議한結果를 本會議에 報告케하기로하고 午後四時十五分 本會議는 休憩에 入하엿다 休憩時間中 廊下는 獨裁案에對한 實否를 論하는 議員으로 大槪壯을 이루어 取引所와가티 騷然하엿다 即時 定刻에 本會議를 再開하고 財政委員長으로부터 一九票對 一八票로 政府案을 承認하엿다는 旨를 報告하고 카이요藏相이 登壇하야 正式으로 本會議에 上程하고「藏相의 責에잇는 限 斷然平價切下는 行치안켓다 그리고 金의 輸出許容도 決코 行치안는다 왜그러냐하면 그것은平價切下에의 前奏曲이기때문이다

予는 世界經濟界의 改善에는 通貨安定이 必要한條件임을 認한다 그러나 通貨安定을爲하야法貨의地位를 放棄함은 不必要하다」고 力說하얏다 이때 急進社會黨의 議員그룹이 社會黨共產黨과함께 獨裁案에 反對키로決定하얏다는 報道가 드러와서 不安한 空氣가 떠돌기 始作하자 뷔송首相은 藏相의 演說後 繼續登壇하야 急進社會黨席에하야 約束의神聖한바를 말하야 내가組閣을受諾한것은 急進社會黨이 財政獨裁案을支持한다고確約한때문이다 고絕叫하야스나 急進社會黨의 不信을 非難하얏는데社會黨、共產黨에서『獨裁案絕對反對』의 소리를치고議場는 殺氣가 떠올낫다 이리하야 投票結果別電과 如히겨우二票의 差로政府案은否決되여 顏面蒼白케된뷔송首相은憤慨히院內閣僚室에 撤退하야 組閣後四日만에內閣을 내던지게되엿다

蔣介石氏의回訓

抽象的으로漠然

【電通北平四日發】 何應欽氏의 調解에對한 蔣介石氏의 回電은四日午後에 겨우 到着되엿는데右內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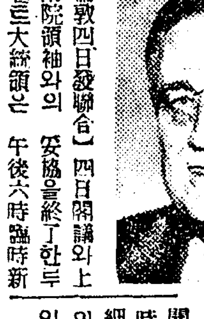
余는 今日까지 日中親善에努力한데도 不拘하고 今回의事態를 惹起한것은 甚히 遺憾이다 國難의解決은 一切閣下에게一任함으로 適當하다고信하는 眞誠實意를取하기바란다

고자못 抽象的漠然한것으로 蔣介石氏의 政治的誠意를 一任한 何應欽氏는 도리혀苦境에陷하게되여 苦慮하고엿다

N、R、A更生을爲한 新法案內容發表

米루즈벨트大統領이新聞記者團에

大審院判決에對應코저



【倫敦四日發聯合】 四日閣議와上下兩院領袖와의 妥協을終了한루즈벨트大統領은 午後六時臨時新聞記者團과의 共同會見에서 臨時產業復興法更生對策에關하야詳細說明하고 議會에提出할新法案의內容을發表하엿는데 聲明은左와如하다 (寫眞은 루氏)

余는產業復興法의 更生策에關하야 上下兩院領袖와協議를遂한結果 政府는善後應急策으로左의 二個의法案을提出하기로 決定하엿다

一、大審院의 產業復興法第三條無效判決에鑑하야 今後政府는 產業契約의執行을停止함 產業復興法에關하야는 今後의適用을 嚴格한 州際商業範圍局限을條件으로一九三六年四月一日까지 存續할수잇도록 下院에新法案을 提出하고 또上院에서決議를行함

그리고別個로 新法案을 提出하야 現今政府購入商品에對하야一定한 資格條件을 附하야 그生產供給乃至契約行爲를停止하는產業復興法에關하야는今後의適用을嚴格한 州際商業範圍局限을 條件으로 一九三六年四月一日까지 存續할수잇도록下院에新法案을 提出하고 또上院에서 決議를行함

二、그리고反個로 新法案을提出하야 現今政府購入商品에對하야一定한 資格條件을 附하야 그生產供給乃至契約行爲에 當하는것은 一切最低賃金 最高勞働時間의 原則下에 雇傭하고 또十六歲以下의少年은 雇傭치안는것을 要件으로한다는旨를規定하기를提案함 政府購入은一時的으로 그金額도比較的적은데 政府는그道義的責任을다할수잇고 또政府로서 이政府의行動에對하야 個人機關이贊成케하야 同樣의處置에 나아가게 하기를希望한다

人事·集會

◀金活蘭氏(梨花女專副校長) 同校舍落成奉獻式人事次來社

左派下院解散希望

【巴里五日發聯合】 뷔송內閣의總辭職에 뒤니여 急進社會黨及共產黨等左翼各派는 聯合大會를開催하고 政局의危機打開策에對하야 協議를遂하엿다 席上에서 社會黨代表가 突然下院의 解散을 希望하고 左의對策을 提出하엿다

一、法貨에對한 思惑을 阻止키爲하야 爲先臨時內閣을 組織할것

一、臨時內閣이 準備를整頓하야 必要에應하야 下院의 解散을斷行할것

勿論右提案에 對하야는 社會黨도 支持를表明하야 下院의現勢를 支配하는 左右各派는 右對案을걸고 共同戰線을 베프러時局에 對處하기로 되엿다

組閣受諾?

結局라발氏가

【電通巴里五日發】 組閣任命을바든上院議長잔·누네氏는 健康이 조치못하다는 理由로 이미 르부랑大統領에對하야 組閣拒絕의意思表示를行하엿다 따라 組閣任命은 再次라발氏에 도라와同氏는 結局受諾하게되리라는 說이 有力하고 閣員은 議會外로부터 多數拔擢하리라고豫想된다

河北省主席으로 何應欽氏就任?

張學良氏긋까지于氏를擁護

近日中要職에轉任乎

【電通上海四日發】 于學忠의河北省政府首席罷免은 이미決定되엿는데 그後任으로 國民政府는 一、對日關係를 巧妙히處理할수잇는相當한大物일것을 條件으로 汪精衛氏는此際臨時政府主席으로 何、欽氏를出馬식힐수밧게업다하야 何應欽氏의就任을求하고잇는데 結局은갓에就任되리라고觀測된다

【電通上海五日發】 國民政府는于學忠의 罷免을決定하얏는데三日漢口로부터 成都에歸還한張學良氏는 蔣介石氏에게對하야 于學忠의 政治的生命을斷切하는것은 余의政治的生命을斷切하는것과갓다 그리고舊東北에如何한影響을與할는지도 알수업다하야 必死의運動을行하엿기때문에 蔣介石氏도張學良氏의希望을容認하야 于學忠氏를他에 適當한要職에就任케하기를 決意하고이다 于氏는 五十一軍長을兼任케한대로適當한政治的地位를 與하기로되여兩三日中에 發表를보게되리라

八面鋒

急進社會黨과 社會黨의反對로 僅僅二票의差로 財政獨裁權否決。

◇ 內閣의運命이 四日만에다한것보다 法貨의 運命이 風前燈火、波瀾만키로 有名한카이요氏가 藏相으로 就任한것부터가 不安의 種子이엇거니、

◇ 瑞西를배워서 人民投票를한다해도 成服後의藥方文이아닐는지。

◇ 法城의淨化運動、지금에 새삼스러움이 도리혀 붓그럽징。

◇ 아모리 大乘的눈으로본다해도 讚經과 俗歌가 合奏하는 格에쫄리는노릇。

◇ 貧困한僧侶의 生活을保障하어라 하면、託鉢의本義는 어느때에 解消되엇는가。

文化建設私議 (一)

世界로부터朝鮮에!

安在鴻

×

無何先生 足下

英國現代의 文豪인 웰스는 그의지은小說『未來의形相』에서 世界一國의理想을 그려낼새 一九四○年頃부터 歐洲에서發端되는 世界의 大戰亂이 十年間이나 繼續할것을말하고 그後十年이면 一九六○年頃부터는 世界一家의 大統一國家가 나타나고말것을 보히바잇습니다 이러케年代까지 豫言하는것은 워낙小說家의 한일이아자마는 世界一家의 理想이 構想으로이약이되는일은 어제오늘일이아닙니다 二十世紀初頭 三十年間의 人類文明의進步는 過去二千年동안의 그것만큼이나 만하고하니 目下飛躍하는 人類文化는 실커나조커나 世界一家의時代를 向하야 다름질치는것이라고 하여도 空想家의헛소리가 決코아닙니다 畢竟아니다 國民的으로 시수가나가지 못하는 逆境에빠진民族으로는 하루밧비 世界一家의 時期가 닥처오기를 渴仰할만도 할일이겟지만 實은여기에도 客觀主觀의 두가지矛盾이 잇는것을 깨달어야할것입이다 첫재 客觀的情勢에잇서서 理想的인 世界一家의時代가 그러케쉬웁게 입에맛는떡으로 똑떨어저들어올는지가 未知의일이오 둘재 아무리不利한境地에서라도 自己들의 後進民族으로서의 意識的努力에 鏤心刻苦함이업시 그저다만 世界一家의 時期만渴仰하는者 잇다하면 그는一種의거ㅣ지心理에서 아모것도 그들의 前途에 光明을 볼수업는일인것입니다 誠心而後에 知天命이라고孔子는 말하엿스니 孔子以來의 天下喪亂한때에나서 孔子以來의 生民塗炭의큰心事를품고 그民衆의大業의때문에 얼마나苦心努力한 大賢의 心事를볼것입니다 一個人이건 一民族이건 이미消滅에빠저거나 어찌苦心慘澹의 途程이업시 그러케손쉬웁게 幸運의날을 天降케하오리까?

×

現下의 國際情勢는 그의世界的 聯關性에依하야 항상相關的으로 進展되고잇는것이니이것은이미 一常識입니다 그러나또各個의나라에서 事情은獨創的으로 發展하고잇스니 이것은또 現代인理由에서 看過할수업는 嚴肅한 科學的事實입니다 前者를만일 各個國家에서 처다보이는 國際的全貌라고한다면 後者는全國際에서 드려다보이는 條達的혹은個別的의 國家民族觀이라고 할것입니다 理論의 世界 에서도 矛盾的인兩個의反面에서 統一되는 一個의全體를 차저내려니와 實踐의世界에서는 더구나 兩個의 矛盾的인 多角한 理念과事體조차도 그의行爲로써 統一 綜合 및會通할수 잇는것입니다 實은 一個人으로서나 一民族으로서 그成敗榮枯를 決定짓는일은 그喋喋한利口가 理論에서 單一한것은아니오 도리어만흔矛盾을 그의行爲와實踐에서 綜合統一하야써 常住不斷의 新生活과 新文化를 創造하여가는 그것입니다 똑똑한존재일수록 處理구진 巨人일수록 그矛盾性의(大體抽象的槪念)에밝고 웅성大한並存을 보는것입니다

×

近世三四百年以來의 處理的인 小朝鮮의사람들이 얼마나 그煩瑣한 單一理論으로 도리어行爲에서의 單一과統一을 戕害하엿는가?는 생각만하여도 牛에넘는것이니 에 殉하야 國家的大計를 글호치든 丙子滿洲의役이 가장 조흔 前例입니다 그들은觀念理論에는 따는 單一하엿지만 정작 그祖國民生을 守護生長케하는 行爲와實踐에는 非單一非統一의 巨大한過誤를 저질럿습니다 現代의 朝鮮人도 大衆의政治過程에 過程이 그러한觀念的繁瑣를 淸算揚棄할 時機를 가지지못햇는 까닭에 그러한 現實을 正觀치못하는 觀念的傾向을 多分으로 가저잇으로는 觀念論을 排擊하는 自稱科學的인 사람들 中에도 그行爲에서는 도리어 觀念論的인 主我觀에 솔리는者적은 만흐니 이를테면 제호저 急進革正家로 自己를 죽켜올려놋고 外他의 眞摯한 工作을 企圖하는者에게는『그것은改良主義的이다』고 輕侮해버리고 또排擊하는일이 적지아니합니다 革正과改良이 並進하는것이 歷史進行의 鐵則이라고하면 그것도 矛盾인兩個事體의 行爲에서의 統一이려니와 歷史過程이 最惡한境遇에는 다만文化運動인 改良的工作에도 스스로逃避하지안는것이 眞摯血性人의 責務인것이오 이矛盾에서統一은 實踐하는 용성구진賢明을 要함이옵니다 그리고矛盾에서 統一로의 重要한一件은 即世界로부터 朝鮮에 再歸하는文化的作業입니다

너름은 素肌美

녀름은素肌의美가가장魅力을나타낸다。

그에는

크림과가튼거품과優雅한香氣나는牛乳비누로貴女의살은一層어엽버진다。

紳士淑女도갓단에도

牛乳石鹼

No. 321

이노우에눈씻는약

井の目洗藥

속하고잘낫는 안질일절의량제

정상눈씻는약

井上目洗藥은如何한眼疾에던지絕對로神效합니다

一次井上家寶의眼疾藥을使用하신분은藥効의信用이多大함을말합니다

全鮮各藥店에서販賣합니다

定價 拾錢 貳拾錢 參拾錢

本舖 京都市麩屋町通佛光寺南 井上淸七 振替大阪三八○八番

◎開業廣告◎

忠世醫院

京城醫學士 金河鎭

京釜線沃川驛前 (金融組合越便)

自五月二十日 至六月二十日 診察無料 藥價半額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錫

産婆 金奉允

入院隨意 診察 自午前九時 至午後八時

安東네거리·電車停留場前(電光二二三一)

廣告 本人이今月二十五日附南烈二字의楕圓形黑角印章을遺失하엿기一般은見歎가無효로注意하시압

昭和十年五月二十五日 全北扶安郡下西面石上里 白南烈

六月四日부터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半 午後二時半 午後七時半

快心의二大名篇의爽颯한豪華

M、G、M超特作日本版 巨匠그리펜스뿌라오監督 名花쯔、그로포ー드主演

杜鵑의노래

바명의가인이것은千變萬化의運命을와너내介널超特作日本版 名匠로이드뻬콘監督

◆그려는눈물과感激의絕品

원더빠ー

華陣 이家 도로레스、델리오 / 케이、프란시스 / 알、쭌손 / 리카ー드、콜테르 共演

斷然、空間、時間을超越한甘美의大饗宴! 歐洲의舞臺와音樂界를席捲하든問題의大作의映畫化

◆P、C、L映畫全發聲一篇

‖次週大公開‖ 아란、나와女王님

‖豫告‖ 콘지네탈、怪人마부세博士、女心、寶島、白衣의騎士、模倣의人生、銀嶺에가거라、카라반、小牧師、첫사랑、補蛇、金色의

全鮮第一 團成社

表發籤當回一第・品景大円万十五品製 イマヅ

▼當籤番號各組共通

大阪市·大仁本町 株式會社 今津化學研究所

等	當籤番號	景品
壹等	360 908 2572	綾八號座蒲團(五帖)
貳等	47 470 1355 1686 2647	女洋傘(一本)

參等 (三越特選對蒸着(一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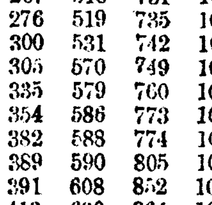
6	116	260	548	1090	1875	2106	2315	2600	2776	2983
40	136	279	705	1195	1956	2122	2430	2630	2819	2994
71	152	404	1005	1224	2002	2297	2452			

四等 (食卓容器附味の素(一個))

48	357	600	895	1278	1450	1829	2131	2434	2523	2577	2743
137	383	601	900	1294	1466	1898	2162	2482	2529	2676	2827
148	408	645	905	1363	1489	1906	2169	2484	2550	2699	2947
176	445	682	917	1369	1626	1958	2188	2521	2566	2728	2985
180	477	699	970	1390	1731	2003	2288				
265	488	712	1000	1417	1747	2018	2316				
317	526	718	1160	1435	1812	2048	2406				
323	571	830	1199	1443	1826	2098	2428				

五等 (毛糸編物修理機(一組))

2	251	439	713	943	1121	1298	1501	1660	1974	2143	2318	2607	2831
20	256	491	720	994	1134	1302	1506	1666	2014	2160	2319	2614	2832
58	267	516	731	1012	1136	1316	1507	1680	2016	2176	2357	2642	2836
68	276	519	735	1021	1138	1322	1511	1683	2028	2178	2366	2646	2838
69	300	531	742	1048	1178	1352	1516	1689	2042	2184	2369	2664	2857
91	305	570	749	1062	1184	1370	1540	1748	2067	2189	2376	2698	2876
93	335	579	760	1071	1241	1375	1547	1803	2082	2207	2390	2700	2883
95	354	586	773	1072	1243	1378	1551	1807	2084	2210	2419	2713	2919
130	382	588	774	1073	1245	1422	1573	1810	2095	2225	2439	2751	2946
154	389	590	805	1076	1254	1434	1595	1840	2126	2263	2492	2789	2951
158	391	608	852	1081	1261	1448	1602	1897	2138	2269	2549	2802	2962
193	413	630	864	1086	1275	1463	1609	1909	2139	2275	2557	2804	2988
203	415	672	881	1094	1276	1471	1625	1917	2142	2296	2587	2820	2989
218	427	680	885	1097	1284	1475	1635	1948					
228	438	707	901	1106	1286	1488	1656	1973					


難問題 はれやか 로解決

上映

▲一、パラマウント特作日本版 銀鼠流線型 監督ラルフ、マーフィー 主演ガートルド、マイケル

二、パラマウント超大作日本版 ▲ベンガルの槍騎兵 監督ヘンリイ、ハサウエイ 主演ゲーリイ、クーパー フランチョット、トーン

思誠天を貫き持情に香る榮光不滅 死線に燦たる武人の姿!! 故郷を遠く離れた炎熱ベンガルの大草原に深紅の長槍一丈五尺!! 殷々たる非常時の砲聲の中に御國を守る勇士の意氣と魂!! 友情と忠誠の二道に生きて敵陣に花と散る武人の!! 烈々として頰を傳うるは歐洲の涙!!

次週封切 ▲私と女王様▲アラン

洋畫封切 浪花館

時急히鋪裝要하는 自動車路만 十萬米

今年中에着工할것은八千米

美化될大京城의路面

하수구(下水溝)와 도로포장(鋪裝)설비의 미비한것을 시뇨급취료(屎尿汲取料)에서재원을어더가지고 착수한다하야그 반가일시맹렬하든것은 일반의긔억이아즉새롭거니와 금소화십년도에계상된 륙만원의예산으로 총연장칠천백 륙십사미돌에면적사십오만오천평방미돌(平方米)을 간이포장 할터로방금 룡산역압해서부터시작하야 착수중이며그다음으로는 세관(稅關)입구로부터효창원(孝昌園)다리까지의것을 착수할터로 그자세한 내용은아래와가튼바 이포장은자동차가통행할수잇도록 이삼간폭원의간이포장을할것으로 오개년의계획으로 계속하야 시행하리라는바현재시내에서 자동차가 통행할수잇는길로 포장을 해야할것이기리구만칠천미돌에그면적이 일백만평방미돌인데 이것을간이포장이나마다하기에는 십개년의일자가걸리리라한다

區間	施工延長(米)
自鍾路二丁目至安國洞	三〇〇
元町三丁目八一八九	一三五
龍山驛前	四一五
自龍山署至三角地	六七八
武橋町通自府廳橫至鍾路一丁目	四四五
自太平通一丁目至義州通	六〇〇
自大學通醫專橫至昌慶苑	三六五
自大漢門至貞洞	三四〇
櫻井町通自黃金町至本町	四四〇
黃金町七丁目	三〇〇
自黃金町六丁目交叉點至獎忠壇	七四〇
寬勳洞	六〇〇
北米倉町	三一五
竹添町二丁目	二〇〇
自橫濱生命橫至壽松公普	二七〇
自稅關入口至孝昌橋	五〇〇
合計	七八〇〇

朝鮮푸로藝盟 不得已解散手續

十年갓가운歷史를남기고

警察에解散届提出

조선프로레타리아 예술동맹(캅프)서긔장(書記長)림화(林和)씨는지난달십일일에 동대문경찰서고등계로부터 그동맹해체권고를밧고 그간서울에남어잇는동지들과협의한결과 드듸여해체키로결정하고 지난이십일동대문경찰서고등계를거처 경긔도경찰부에그동맹해산계를제출하엿다 이캅프는지금으로 더 팔구년전인일천구백이십칠년경 박영희(朴英熙)씨등 프로문사들로조직되어 예술단체로서일시에는 긔관지로집단(集團)이라는 잡지까지 발간하야로동계급의 문화과연극및 영화운동을하여오든중 시오년이래객관적정세의 변경됨을 딸아 다만그간판만남기고 잇던바이지음강경한해체권고를밧고 드듸여해체되고만것이다 이와동시에가티해체권고를바든 극단신건설(新建設)도 불원간에해체케될모양으로 이로써종래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을 위하야악전고투하든 이두단체도드듸여해산되고말게되엿다

密偵嫌疑로 四名을銃殺

長白縣下土兵被害

【咸興】모처정보에의하면 지난십삼일 십사도구사두방자(十四道溝四頭房子)에서 랍거된의주조선인 최석성(崔錫成)외일명과 십오일 십오도구에서 랍거된의주동포 리길수(李吉洙)외일명도 합한사명은 그간무송현(撫松縣)중물리(中物里)산림중에 감금되여 잇든바 이네명은 밀정이란혐의를밧고 모다총살되엿다고한다

◇寫眞上은京城蹴球團에게優勝杯授與 下는文理大學과의決戰光景(東京神宮競技場에서)

機關車破壞로 損害六十萬圓

【密陽】기보=지난이일오전팔시이십분 경부선밀양역구내에서두개의 긔관차가 충돌전복하야두개의긔관차는물론 두개의 객차까지 탈선대파하엿다함은 기보한바이어니와 현장에는부산(釜山)으로부터 구원렬차로 수십명의공부가달려와 림시응급공사로가선로를신설하야 제구렬차인측 밀양역발 오후한시이십륙분발차부터 개통되엿스며 이어부산으로부터 칠톤(噸)반의 긔중긔로관차도 도착하야 해체(解體)공작을진행하나 긔중력(起重力)부족으로공사를하야 룡산(龍山)에서도삼십오톤(噸)긔중긔가 삼일조전에도착하야 우중임에도 작업을 계속중이나 해체급선로복구에는 일주일이라는시일을 요하것다하며 금번피해액에대하야는 역장급관계자들이 일절함구불어함으로자세한것은알수업스나 모방면으로탐문한바에의하면 파손된긔관차급객차의피해액은약오륙십만원이라한다

許職出監

중국공산당사건관련으로 소화팔년십이월이십일에 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으로 징역사년판결을밧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중이든간도연길현국자가상부지(商埠地)허직(許職)은 오일아침어덴지에 만긔출옥되여 방금교북동(橋北洞)오십번지 교복려관에 투숙중이라한다

未就學兒童을 收容토록學校增設

初等教育委員會意見

초등교육조사회(初等教育調查會) 제일회 위원회는 오일오전아홉시부터 총독부 제삼회의실에서 금정전(今井田)회장총재、지전(池田)경무、도변(渡邊)학무、우도(牛島)내무、림(林)재무각국장、부영(富永)경긔도지사、동거(棟居)심의실사무관、수전(水田)사계、경산(景山)세무、서강(西岡)지방 세과장의 위원과 밋간사 출석하에 개회하야 일면일교 완성후의 초등교육보급확장에관한 근본책 결정에 편하야 금정전회장으로부터 인사가잇슨다음 먼저학무국에서 작성한 조사재료에관하야 도변학무국장의 설명과 각위원들의질문이 잇섯는데 대체로 금후의목표는 취학희망아동을 수용할수잇도록 기설학교의 학급증가와 공립보통학교 밋간이학교증설에 두기로의견일치를본후 동열한시반에 산회하엿다

三百兒童에게 學用品을分給

【盈德】경북영덕군축산면도곡동(慶北盈德郡丑山面道谷洞)박승태(朴承泰)씨는해면내취학아동 삼백여명에게 잡긔장(雜記帳)시가이십여원의물품을분급하엿다 그씨는빈한생활중에서도 축산보통학교긔성회장으로서 장학(獎學)의취지를일반에모범케할이라는바 축산보교설립도 씨의열성파공헌이적지안타고하야일반의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양잿물로解消된 薄命美人의芳魂

妾살림실혀雨中飲毒

서러운것은 그들에사는원의 신세―사일오후 일곱시 대마츰창밧게 뿌리는 사나운비바람소리를 드르면서 괴로운첩살림을 죽엄으로써 해소한 불우의첩이 잇다。

이쯤흥모속의 윤희(潤姬)는시내청운동(淸雲洞)구십륙번지 부호리귀동(李貴東)의 첩 김홍순(金鴻順)(二三)으로서 사일 일곱시경에 자긔집에서 집안사람들이 보지안는틈을타서 양잿물을 마시고 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들이 발견하고 곳부근의사를불러서 응급치료를 가하엿스나그만절명이되고마럿다고한다 제이그원인을 드르면 그는일즉이시내모녀학교를마친 신녀성으로서 운명의희롱이랄가 엇지하다가전긔부호의 첩으로 드러갓스나최근에 남편이 또다른첩을 정한것을알고 아모래도 희망이업는 청춘을 죽엄에 나저버리려고 한것이라고한다

昨夜大和町에 路上의强盜

녀자를습격하고돈빼서 通行人이달려가逮捕

원적을전북전주(全州)에두고주소가일정치못한김용규(金容圭)(二〇)는사일오후 열시반경 시내본정이정목삼중정(三中井)백화점에서 대화정(大和町)이정목강등기미(江藤)라는녀자가 물건을사고 십원짜리에서 거스른돈 구원각수를바다넛는것을보고 그뒤를 발버가다가 대화정헌병대압 부근에서 돌연달려드러 돈을채어가지고 도주하다가 마침통행하는사람에게 붓잡혀 소관본정서로넘기엇다

國境警備新機 購入豫算編成

평북경찰부에서는 작년평양비행대로부터살무손긔를 양수하야 이를 개조하야가지고 경찰긔로 사용하는동시에 작년겨울 신(新)비행사를 촉탁하야 공중의국경경비를하고 잇섯는데 그비행긔는 구형으로국경의 경비에는 감내하기어려움으로 경무국에서는그대용긔로 새로히 신예산「푸쓰모쓰」긔 일긔를구입하야 공학상용하야 완강한국경경비에 활용키로되여 명년도예산에 그구입비 일만이천원을 요구하려고목하준비중이다 그리고 신비행사는사직하엿슴으로 당국에서는륙군출신의 다른비행사를 초빙할방침이다

第一回全朝鮮中等庭球大會

申請今日限 六月五日午後六時까지 每校一組 三組、市內崇一洞佛敎專門學校로

男便은病들어눕고 兒孩들은굶어서울어

고생끗헤자살한녀자애화

【釜山】가난에못이겨 병든남편이어린자식을 남겨두고 투신자살한비극!!=주인공은본적을경남김해군녹산면녹산리(金海郡菉山面菉山里)에두고 현재부산부영선정(瀛仙町)에사는박상옥(朴相玉)의처 김임이(金任伊)인데 지난이일오후삼시경에 무단히집을나가서 약삼십분후에 동정대평포 매축지해안에서 익사한것을 부근주민이발견하고곳 수상서에급보하야 검시를하얏는바투신자살로판명되엿다 이제그 원인을드건대김임이는 지금부터 약십사、오년전에 박상옥과결혼한이래 그간삼남매를낫코 로동을하야 그날그날을 근근히지내오다가 약오개월전에 남편이병마에걸리게되자 수입이업서저다섯식구가 살길이 막연하얏다한다 그래서 김임이는 이웃에품파리와 구걸로서 근근연명하야오든중 남편의 병은날이갈수록 중하야짐편이고 또 설상가상으로자기도 몸어피곤하야 이제는 얼마간의 품파리조차 하기어려워서 수입을끈엇는데 어린자식들은 굼주림에못이겨 밥을달라고 애걸하며 남편은통병에의이지못하야 신음이심하는등 모든 고통이 김임이의가슴을 압호게하얏다 그래서연약한녀자의몸에 무거운고통을 이기지못하야 그와가티 투신자살한것이다

天氣豫報

曇時晴

高氣壓은 日本南方海上에擴大되고 低氣壓은 沿海州에七四二미리 天津北方에七四八미리를보이고함께 東進中이다 全朝鮮은大槪日氣가조흔데新義州에는비가오고잇다 明日은日氣가조타

昨日最高 一六、二
最低 一二、六
今日正午 二〇、八

◇오늘이端午……남묘 그네터에 모인군중을

寺刹淨化取締에 四十飲食店將來何

問題될淸凉寺、永導寺等十數處

東大門署도愼重考慮

경무국에서는 사찰(寺刹)의존엄을보전하며 풍긔를단속하기위한다는 목표하에 사업부로각도에 대하야 절간의유흥을 일체엄금하라는명령을 내리엿는데 그내용을보면 자못막연하야 어떠한범위까지 사찰유흥을 취체할지는 자못주목되는바 쉽사리사찰유흥이라고말하나 시골에잇는 적은사찰로서 법당(法堂)과승려의사는집이 다만한간밧게업는곳에서는 유흥장소가 확연하지마는 경성근방에잇는 절간의 유흥장소는 법당에서 유흥하는것이아니라 그법당을 중심으로한 린근가옥에서 음식영업을 경영하고잇는만큼 이것을곳사찰유흥이라하야 일률로금지하게될것인지는 경무국에서발표한 명령만으로는 분명치못하다 경성부근의사찰은 대개가동대문경찰서관내에잇는데 사찰소재지는 대개가산수가명미하고 풍경이조와봄、여름、가을、겨울을통하야 살풍경한 경성시민의 한위안처 즉하루 소창하는곳이되여잇다 그리고 절간근접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승려들은 아모것도 절의재산이 업서 이영업을한가지의 생활유지책으로 하고잇는만큼 장차여하히 취체할는지 업자에게도 그다지 대타격이업고 또 일반시민의 납량처또는소견처로 리용하게 할수잇슬가자못어려운문제라고 관내에청량사(淸凉寺)안정사(安靜寺)영도사(永導寺)등열세곳의 사찰에사십여곳음식점을가지고 잇는동대문경찰서에서는 여러가지로 그취체방침을고려중이라고한다

東大署當局者談

아직신문지상으로 보앗슬뿐이고 아직경찰부로부터 구체적지시를밧지안하니만큼 어떠케취체범위를 결정할지방금조사연구중입니다 경성에서 사찰이라면모다우리서관내에잇서서 봄、여름할것업시 시민들이만히 노리터로리용하고 도업자들도이것을생활책으로경영하고잇는만큼 취체방침결정이여간어렵지안흡니다 일반이절이라고말하나 음식영업하는곳과 법당과를 구별하여 보지안는감이잇슴니다 아직까지 법당에서쓰는『평가리』나『징』은 손님에게빌려주는일은 잇는모양이나 법당에서술을 들리며 술을마시고소리를 하게하는일은 업는듯합니다 자세히 통계수자를 조사하야 적당한 취체방침을 작정하겟습니다

運動競技欄

日本蹴球界를征服 京蹴優勝하기까지

對文理大學軍戰詳報

【東京特派員金東進發信】京城蹴球團이 全日本綜合蹴球大會에 出戰하야決勝戰에 文理科大學(關東代表)을六對一로 無難히擊退하야 日本蹴球界를完全히 征服하엿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同決勝戰況을紹介하면 다음과갓다

京蹴6 文理1

【前3…1 後3…0】

明年伯林올림픽派遣選手의 銓衡科가 될貴重한一戰! 京城蹴球團對文理科大學의 決勝戰은二日午後에神宮競技場에서 열리엇다 天氣明朗하엿스나 風勢稍强하야 京城은 良好한컨듸슌이못되엇다。京城은 午前中의 準決勝戰에서 名古屋高商을零敗식히고 文大는亦是關西大學을 三對零으로敗退시킨餘勢로對陣하여最初相當한消力으로 京城에對敵하얏스나 時間이익어가매 實力의差異는엇절수업시六對一로 京城에게敗하얏다。스탠드에는約半分이 朝鮮人으로채워저서 자못應援이熱烈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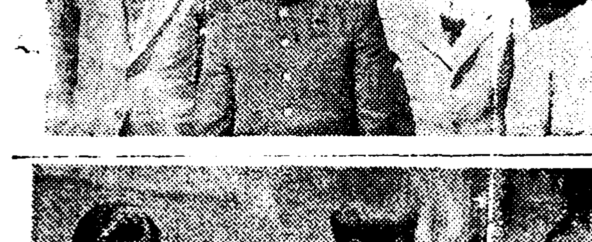
【前半】三時三十分 京城先蹴으로開戰 關東의强豪文大機先을制하야劈頭에攻勢를取하엿스나 너머急하야 二次의푸리킥을當하엿슬뿐 三分頃부터 京城實力을發揮하야 五分頃부터敵陣前에서混戰하더니 畢竟七分에 OF金成玕의헤딩으로 一點을先取하니 滿場의朝鮮人이熱狂歡呼하다。文大陣勢를整制하야挽回에努力, 暫時하푸라인을上下하다가京城軍의猛襲의攻擊을須하야 十六分에RW林의슛이골인되나 一對一로同點이되어滿場騷然하다。京城軍奮起하야 大擧進擊하니 보람잇서十八分에成孫의正面슛이奏功하야 二對一 二十分에朴孝濟 敵門前에突入하다가 킵의발에顚顚負傷하야너머젓섯스나 勇氣내어다시이러나다。二十五分頃까지 警으로大門前에서轉轉하엿스나 得點업섯고 文大三十分頃에京城軍 페날틱에리아까지 進出하엿섯스나 FB의善防에效果를 엇지못하고 一進一退의形勢이더니 四十四分에京城RW裵宗鎬의 드리블슛이 골인되어 또한點을加하야三對一로前半을이기다

【後半】文大의戰法을變更한京城軍은得意의 롱슛으로 劈頭부터攻勢를取하니 不過一分만에 崔成孫의 叙面强蹴이골인되어 一點도엇고 五分及十一分에 OF金成玕의슛이 골인되어 다시二點을빼스니 文大의奮戰도 生色이업시 戰勢는이미기울다。文大十五分及十六分頃에 京城門前을엿보앗스나 다시밀려나매 戰術을防禦에置重하야 오로지失點의적음만희하는듯이 포드들까지後退死守하니 좋처름突隊이업스매京城軍오직롱슛으로 敵陣을威脅하야다 文大聲을보아 暫時進擊을試하기도하엿섯스나 別戰을주지못하고 如前히壓迫을 벗다가 타임업되니, 六對一이라는後쩍以上의 큰스코아로 無敵軍京城팀의實力을자랑하다(게임時間九十分)

【京蹴】		【文理】
康基鉉	LW	竹內
崔成孫	LI	久下
金成玕	CF	松永
裵宗鎬	RI	小林
朴孝濟	RW	小川
金炳燦	LH	木村
金容植	CH	原崎
李裕灐	RH	藤田
鄭龍洙	LF	三塚
朴奎貞	RF	阿部
李惠逸	GK	中垣內

	得點	門蹴	隅蹴	自由
【京蹴】	6	8	5	6
【文理】	1	17	1	7

平壤拳鬪軍 今朝入京



本社後援아래 明七、八兩日間 慶雲洞東一銀行庭球場에서 열리는 第二回全朝鮮아마튜어拳鬪選手權大會兼比島對抗代表 選拔戰에出戰하는 平壤獎武會拳鬪部所屬選手 呂在德 韓英俊 韓龍河 諸君은監督趙承俊氏引率下에 今朝入京하야 南大門通五丁目五九 昌愛旅館에投宿하고 午後부터 YMCA에서 練習을行할터이라한다(寫眞은人事次本社를來訪한平壤拳鬪軍一行)

咸興代表入京 青年會에서猛練習

咸興拳鬪俱樂部代表選手 金在勛 朴亨錫、金東善三君은 第二回全朝鮮아마튜어拳鬪大會에 出戰코저 監督朴殷燮氏引率下에 지난 三日에入京하야 中央基靑道場에서猛練習을 거듭하고잇다(寫眞下는本社來訪한 咸興拳鬪軍一行)

第二回市內中等 女子庭球 十五、六兩日間

朝鮮軟式庭球聯盟主催의 第二回京城市內女子中等學校庭球리ー그戰은來十五日(午後二時)、十六日(午前九時)의兩日間 總督府코ー트에서 擧行할터이라는데 每校三組式出戰하야 리ー그戰에依하야 覇權을決하기로 되엿다는바 昨年의優勝팀은 京城女高普이다

高麗體育會主催 開城…土城마라손

【開城】開城高麗體育會에서는 來十日에 第一回土城驛往復마라손大會를 開催하리라는데 參加希望者는六月九日까지 同會에申請하기를바란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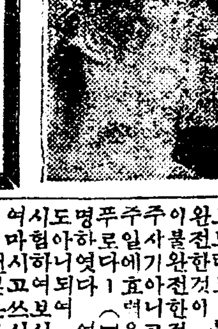
朝鮮硏武館 定期昇段進級戰

市內諸松洞에잇는 朝鮮硏武館에서는 來七日午後七時半부터 同道場에서 定期昇段進級戰을 行할터인바 一般의參觀을歡迎한다고한다

보양보음 젊어지는약은 가이자가제일이오

림질 대하증엔 구로벨 제일속히듯습니다

매독에는 푸로다ー가제일이오



만일무슨약이든지어삽일쓰시와특이성의체질(特異性體質)노병에안맛거나광고와틀니는점이잇거나마음에안맛거나특효가업거든약을곳보내시요청구하시는대로하여드리겟슴니다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 直輸入株式會社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側(五) (제일큰서양약집)

電話光化門三三四番(振替京城四九五〇番) (그전신성당약국입니다)

六月五日より遊園特別大公開 階下席十錢均一 大都映畫社特作ナンセンス劇 製作指揮 河合德三郞 監督 吉村操 藤間林太郞 春水露子主演 女房大進軍 伴淳三郞 千代田綾子 甲賀三郞 都河まさ子 共演 明らかなサラリーマンの家庭に勃發した愉快ナンセンスの數數篇 メトロ超特作全發聲日本版 ハールローチ監督作品 極樂兵隊笑二人組 スタン・ローレル オリーブ・ハーディ大珍演 大都映畫社超特作時代俠劇 快賊デアイポロ 原作腳色 小原武雄 監督 大伴麗三 海江田譲二 月宮乙女主演 倚偶道中仁義 島田大郞、久野おかね 松村天天、大和 王技 共演 達山龍之介、谷 定子 旅から旅にやくざ仁義の都古の半太郞の數奇な道中物語り 晝十二時三十分、夜七時より 本局八一七二 櫻井町 大正館

六月五日부터名畫封切週間 晝夜二回興行 코럼비아會社超大作全發聲日本版 로스내ー다만氏大作品! 兒은世界에第一 워너ー만코리아·쥬니아氏 존마ー인氏 主演 RKO會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래이엔라이드氏 監督 재스타ー·모리스氏 비비안오스본氏 主演 七時가되면죽는다 陰險慘慘!戰慄!七時가되면죽는다는符字의亂飛!神人이驚愕할飛機內의殺人으로事件은復雜又多端!醍醐味百%의自信篇 大都映畫社特作時代連續篇 益田晴夫監督作品! 躍る鬼神 前篇 阿部九州男 大岡怪童 木下双葉 主演 貫鐵洞 電光二六二 優美館

五月三十一日낫부터大興行 每日三回正午十二時三時半七時半 映畫史上空前의大巨彈二大名畫封切 ◎파社特作全發聲日本版 랄푸마푸이監督 銀鼠流線型 카롤도마이컬 主演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헨리하시헤이 監督 게리쿠바 호란조도돈 리차드구로무웰 主演 벵가루의槍騎兵 파社가全能力을다한感激의巨篇 製作發表以來五個星霜 出場人員二萬人!! 深紅의長槍은一丈五尺五千의精兵의突擊하면보라벵가루의大草原은炎熱의山野에그들의帝國을直히는猛夫의意氣와魂을보라友情과忠誠의두길의의사는벵가루의槍騎兵!! 朝鮮名畫 無花果 近日 豫告 仁寺洞 電光二六 朝鮮劇場

當ル四日特別大公開(三日間) 待望の名篇『お六櫛』堂堂第二週封切に迫る!!佐美紅絲先生名作待望の本週特別御禮週間!! 階下席大人學生廿錢均一小人十錢 新興キネマ特別提供 入江プロ超發聲現代劇 婦人倶樂部連載 原作 久米正雄 監督 田坂具隆 月よりの使者 全十五卷 名花入江たか子 好漢高田稔 主演 江川なほみ・松本泰輔・荒木忍助演 新興キネマ特別提供 阪妻プロ本年度超弩級作 原作 土師清二 監督 長尾史録 阿彌陀時雨 全十三卷 名東妻三郞(一人二役)主演 阪花森静子、金澤美津子大競演 晝間 午後〇時三十分より上映 夜間 午後六時五十分より上映 ‖次週七日待望の名劃封切‖ 山田五十鈴、夏川大二郞 主演 お六櫛 田村邦男入社第一回主演 鼻唄奇兵隊 バスター、キートン主演 輕馬同盟 永樂町 電本二三二 中央館

口腔衛生解說

구강위생의가치 (三)

충치발생원인과 그예방에대하야

세부란스病院齒科 金喆膺

충치의예방과 처솔선택하는법

제일첫재 우리가 평소에입안을 정결하게할 필요가잇다는것은두말할것업고 치아의면보다도 니와니사이 도한억음니복판을 될수잇는대로 잘닥거서 음식물에 남어지가엣지 안토록하며 니와니사이에 끼인음식물이잘빠지지안는경우에는 도함견사(齒間絹絲)라는실로 깨끗이 빼여버리는것이조흘듯합니다 가장 피상적으로는 매식후에 이를닥는것이조흐나 그러나 그것이 잘되지못하면 적어도 하로에두번씩아츰과밤에 사용하는것이 조켓습니다 매욱우리가 밤에잘때에는구강안에서 생산작용(生酸作用)이심하고 세균의 활동이이커서 맛치적군이 상대에 약점을알고 습격하는거와가티 세균은침범만식히게됩니다 그런고로 잣치기전치아를 닥는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하겟습니다 근일에는과산화수소(過酸化水素)로 양추하는등을 만히보겟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파는것은 대개三、〇%에강한것이기때문에 도리혀이롭을해하는폐가 만히잇스니 이것을 십배나훗흔 이십배에 물과히하야 사용하면 대단히유효할것갓습니다 그외에도붕산(硼酸)은비교적조흐나 이백배내지사백배하가 적당한것이요 이것도 역시농(濃)하면 위장을약하게하는때가잇습니다 특별히 어린에는 [illegible]주의할것입니다 도한 저작을잘하는것과 이야기를 만히하는것도 역시치아를깨끗이하는 조흔방법이라할수잇습니다

처솔의유래

처솔은 약이백년전에 불란서에서 발견된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게된것도 벌서 삼십여년이되엿습니다

一、처하에 경부분을 정결히하게할만하고 구강안에서 자유로사용할만한것

二、치아와니몸이 상하지안흘만한것

三、사용후 용이히정결히할수잇는것

이세가지조건이 구비하면 조흔솔이될수잇습니다 —끗—

자녀에게대하야 제일큰의무는애정

첩엇는아버지는자식에게무성의 게모의학대도아버지탓

문제의거리

지난 이일 본보조간 보도에의하면 백만장자의일시적 방종한 생활의씨로 태여난 불행한 소년이 그아버지를차저 시골서 서울까지 왓스나 그아버지된이의 무관심과 의모의 냉대압헤서 순진한 동심이 다깨여지고 맛침내절도범인으로 라락되엿는데 그아버지를차저서 대면을식히려고하니 자식을 자식으로알지안는아버지를 불으면 무엇하느냐고 거절하엿다고하는 애처럽고무서운긔사가잇섯습니다。

대체로 부호가그금력과 세력을밋고서 이러한

죄악의씨를남긴

다는것은 한개의 죄악이라고아니할수업거니와 가정에 잇서서 부모의애정이업스면 이러한 죄악이생기는것입니다 본래에 축첩이라는것이 엇더한의미에서든지 용서할수업는일이지마는 그몸에서생긴자식을 천대를한다든지하는것은 더욱이 용서할수업는일입니다 부모라는것은 어느시긔에 이르는동안까지는 자식에게대해서 크나큰 의무가잇는것입니다 길너주어야할의무가잇고 교육을식혀주어야할의무가잇지마는 그중에도 제일 큰의무는

애정을가저야할

의무가 잇는것입니다 만약 남의부모가 되여서 그자녀를 사랑할줄 모른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지못한만큼 또한 부모로서의 아모런 권리도업는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사실과가티 부호의 유탕한생활에서생겨난자식일지라도 그것은 그유탕한생활을한사람에게 책임이잇는것이고 결코 그자식에무슨책임이잇는것은아닙니다 아니그보다도 도리혀 이러한자식에게대해서는 그부모가 더큰 애정을가지지안어서는안되는것입니다 흔히 자녀에게는

모성애가필요하

다고하지마는 물론 모성애도필요하다고하드래도 또한 부성애라는것도업지못할중요한것입니다 흔히 부인네의감정이라는것은편협하기쉬운것이여서 자긔몸에서난자식이아니면 애정이업슬뿐만아니라 도리혀 미워하고 학대하는수가만이잇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는말에도 계모의학대갓흔것은 어데라도잇는것이지마는 이러한경우일지라도 그모친되는이가 원만한인격이잇다든지 수양이잇스면 별로문제될것이업겟지마는 만약그럿치안타고하드래도 이럼한 가정적인 가정관계에서 안온하게자라날수도잇는것입니다

부성애가잇다면

대개 어렷슬때에는감정이강하고 도한 그것이 항상 어뎨에든지 의지하려고하는것임으로그에 때부모의애정을 밧지못하면 의례히 이러한사건과갓치 가정을떠나 서아주타락을해버리거나 그럿치안타고하드래도 감정이상하게되여서 일생을명낭하게지나지못하게되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이러한사실을대할때마다 다만 남의일이라고해서 지나처생각지말고 오히려 이것을 한개의구감(龜鑑)으로생각해서 자녀에게대한 부모의의무로서 애정을이저서는안될것입니다。

曆

六月六日(木) 舊五月壬午(大)初六日

癸丑·木·斗·成

●裁衣·動土·上樑·巳時·開市·納財에宜함

▲芒種 七日(舊五月初七日)

▲夏至 二十二日(舊五月廿二日)

단오날

◇머리감는창포탕 ◇경동와그네뛰기

오늘이 단오입니다 이날이 천중의가절로 일년중에도 제일아름다운날로된것은 물론 절서와 긔후의관계도잇겟지마는 녯날의 유래를살피건대 고신씨(高辛氏)의아들이 이날에죽어서 그혼이 사람을괴롭게함으로 오색실을매여서던저주엇더니 오색의룡이되여올나간뒤로는 그해가엄서젓다고하고 또는 초人나라의충신굴원(屈原)이라는사람이 멱라수에 빠저죽은날이 이날임으로 그때에 여러배가 다투어건지려고한때문에후세에 경도(競渡)라고하는것이생겻다고합니다。경도라는것은 맛치 요사이의『보트·레스』와 갓흔것인데 어것이 굴원이죽은뒤에생긴것인지 그전부터잇섯든것인가는의심스럽습니다。따라서 벽사를한다고해서 약초를뜯더가 몸에차기도하고 목욕도하는데 그약초는 대개 창포와 궁궁이입니다。

그리고 추천이라는것은 고사에보면 녯날조선사람이 몸을가볍게날세게하기위해서한든노릇이데로서 간때는 한식날에하엿는데 이것이중국으로 드러가면서부터 날세가따뜻해진 오월단오일에 하게된것갓습니다。그리고 녯날 한식에하든추천은 일명을반선희(半仙戲)라고도햇는데 어이튼 추천이란 우리민족의 녯날에엇든 상무적유희엿든것입니다。

녀자교향악단의 컨덕터—

유자의아메리카에서 대평판을밧고잇는 녀자교향악단에 지휘봉을흔드는것이 「에바·센드스」는룽양이랍니다。특히 「뉴-욕」에서 인끼가잇는데 갓가운장래에는 제일류의오-케스트라가 되리라고해서 그녀들의 긔개는 자못놉하젓답니다。

婦人時評

가정부인과 직업부인 (4)

一步生

그러므로 결혼한부인이입신되는때부터는 그직업을버려야할것이오 더구나 해산한 이후면직업을 것지안허야할것이다、이는 그녀성자체의건강으로위해서나 또어린애의 발육으로위해서나 당연히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정든 직업을 버리게되면 배월 드러오든 수입이 업서지게 되므로 가정경제상 커-다란 지장이 생길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여떠케 보충할수가 잇슬가?

이방법은 결국 남편의 수입을늘리울수밧게업는데 이것을늘작서리 늘리울수는 업는것이며 여긔서 한가지 고민이 생기지만 홋수가 업슬것이다。

만일에 어린애를 낫치안는다면 문제는 간단하겟지만 이것은 사람으로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가저야할 임무이니만치 산아방지를 할수도 업는것이다 그러므로 첫재는 자식을 낫키전 그것을 예상하고 저축을 해야 할것이나 그것도 생활을 겨우 유지하는 정도의 수입이라면 그릴수도 업슬것이니 결국에긔서 한가정의 문제가 아니 한사회문제로 회하게되는것이다

다시말하거니와 어린이를 가진부인이 적어도된다는것은그 부인자신이나 그어린이나가 정신상육체상커-다란려움을맛고따라 일에도 능률이 적게 되는것이니 이러되면 직업부인이나 직업을준곳에서나 모-두손해인고 민족우생학상으로도 손해인것이니여긔에는 국가가 그가정생활을조사하야 그어린이하나에 얼마식의 보조를 주거나 혹은 세금을 면제해주어야 할것이다 현재도 소득세가튼것을 어느정도로 면제해주지만 좀더그들에게 유리한 면세규정을 주어야 할것이다。

그것도 한방법이어니와 남편의취직처에서는 적어도 그가족수를 더주어야 할것이다。

이것은 대개 구미에서는 실시하고 잇는것이지만 그러치안코는 모-두 가정경제의 파란이 날것이니 결국가정경제파란은 그국가 그민족의 쇠망을초래하는것이니 이는 사회정책상으로보아 크게 문제삼을 것이다。

이상의방법으로써 어린이잇는부인에게 직업을주지안코서도 생활의 지장이업도록한다면 이는 사회발전상크게효과가잇슬것이오 따라새로나오는 취직자를위하여 또 그길을 열어주게되므로 이도또한 구제하게될것으로써 적어도 국가나 고주측은 이를좀더생각해야할문제라고본다

家庭 메모

밋둥이 하얘야 병안든양배추

캐베쯔、우리네가정에서는양배추라고도하는데 이것을 사실경우에는 모양이 둥글고、나부잡작하고무거운것을 고르십시요。그래야 맛도조코 영양도잇습니다。그리고 밋둥이 하얀것은 상하지안흔 것이라 오래두기도 좃습니다。그밋둥이 그러치안코검붉고、호록호록하다든지 입파리나줄거리에썩으듯한부분이잇는것은 탈난것입니다。이것은 맛도업고、영양도엽슬뿐더러 될데가만습니다。아모리갑시싸더라도 이런것은 사면 여러점으로보아손해입니다。

◇

생강은 마른모래나흙속에파무더두어도 시기에따라 싹이나 맛이고약하게됩니다。그럼으로 생강은 신문지에싸가지고나서 모래나흙속에무더두면언제든지 신선한생강으로쓸수잇습니다

醫學

가슴이두근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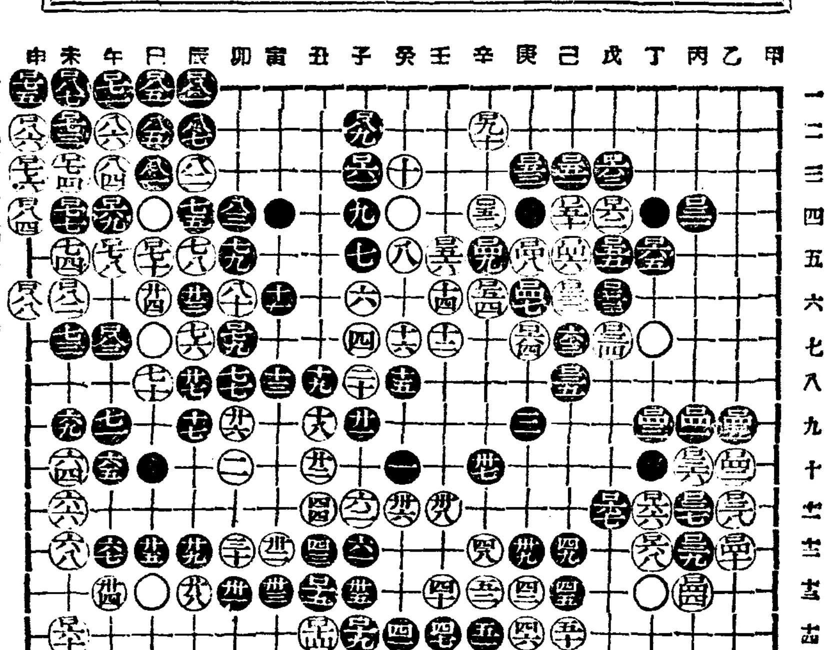
問 저는 이십○세된남자인데 웬일인지 약한一전부터 가슴이두근거린는것갓고 뼈가지긋지긋하는데 그전에는 아츰나섯시에 이러나도 조튼것이 지금은 아츰여덜시에 이러나도거북합니다 이병은 대체어떤원인인지하교하야주시요 (一讀者)

答 당신병증세를드러서는 심장이좀쇠약해지지안헛스면 신경쇠약에걸린것갓습니다 그러고아츰에일즉이러나고 늣게이러나는것은 습관에도 큰관계가잇는것임으로 그것만은 무슨큰병이라고하기어렵습니다 (大衆醫院長 金東益)

혓바닥내밀기 「누가 만히내미나 햇보까? 헤!」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1)

白 柳鍾河 五先 黑 丁奎春



【●一七一】午의一 【○一七二】未의一 【●一七三】未의二 【○一七四】未의三

【●一七五】申의一 【○一七六】申의三 【●一七七】未의四 【○一七八】午의一

【●一七九】卯의七 【○一八〇】巳의一 【●一八一】辰의一 【○一八二】未의二

【●一八三】午의七 【○一八四】申의四 【●一八五】巳의一 【○一八六】申의一

【●一八七】未의一 【○一八八】申의六 【●一八九】子의二 【○一九〇】辛의二

★死點 【○一七二】未의一 【●一八〇】巳의一

◇蔡極文氏評 白이 先次卯의七로 應手를取한후 午의一로 起立하면 卯의二에 趁點을 置함으로 黑이 또 應하고 떼거시다 白一預備를 못하엿다가 白耳角縮少함이 遺憾이아닌가 黑이 子의一로 延立함은 白이 寅의一로 置함을 畏懼함이니 壬點에 點은 不可不着이라 學與觀하는못하리로다

유-모어小說

望夫石 【廿九】

金熊超 作、畫

자장歌 (三)

『어서 애기나하서요』

명례는 경련을 너무오래이르켯다가 실수할까바 다시 진정되여보엿다。

『글세 애기는 할테니 어서로 하기버렷해。제발 날날리는 로랑하구 엉 엉』

재호는 명례의 악착스러움이 진정이되여서 다소 마음이 노엿다。그러나 불안과 초조때문에 업풀이 맙아니엇다。명례의 가슴을 끄려안엇다 무론드려다하면서 비럿다。

『어서 애기 버렷하라니까』

명례는 재호의손을 뿌리첫다 눈물이 글성글성한 벌건눈과 게풍이 질질흐르는 입을해가지고 매달리는폼이 우숩기도하고 불상하기도하엿지만 재일에압가슴과 겨드랑미치 간지러워서 견딜수업섯다。

『애기할테야 해……』

재호는 황당하게 경파보고를 드리기시작햇다 『파하는길로 바로집으로 오겟드니 친구가맥주한잔먹고가자고 작구조르기에마지못해 따라섯지……』

이말을하고 마른침을 꿀떡생켯다 명례는그래서?하는듯이 눈만 깜작깜작하고잇섯다。

『그래 두어군대서 어더먹엇는데、청송이라 호기가뻐처 남의술만 어더먹고잇슬수가업서서내가한잔 냇서』

『그사람은 얼마치나냇기에?』

『한 팔원각수』

『그럼 팔원어치 어더먹고 십원어치로 갑혓구료。변리껴서?』

『그런것도 아니지만…처음에는 내돈안드리라고햇다가 할수업서서 한이원쓰자고한노릇이 호지부지 경우가 그러케돼버렷서』

『그래둘이서 이십원돈을 깨먹엇군요』

말이쉬어 이십원이지 명례의구구로치면 한달사를돈이엇다。

『입에발 소리가 아니라 오늘바든 십원은 설상업서도 집에가저올라구햇섯서』

『말만해두 생색이나는구료、그래 어디어디서 자섯소?』

『오뎅스집에서먹고、찻집에서먹고、빠-에서먹엇서』

『오뎅스집은 뭐고빠-는뭐요』

『그건……』

장황하게 설명은 할수업고맙문을떼히고해서 멍어리첨명당답하게 손짓만 두어번하다마럿다

『당신은 어데서 내섯소?』

『빠-에서 냇서』

『카페-이름이 빠-요』

『아니아냐-랑어런술스집이야』

어둘어둘 하다가는 시간이가겟고해서 솔직하게말해버렷다。

『녀자가 술따르지요?』

넘겨집허보앗다。

『그래』

『무슨꼬 무슨꼬가잇서요』

명례의 드른풍월로는 카페-녀급의일홈은 모두꼬짜가붓는줄로만아럿다。

『애라라는 주인녀자하나뿐이야 사내급사애가하나잇구』

『무어라는 녀자요?』

명례는 다시한번되무럿따。생각나는이름이기에。

『애라』

『활동사진에 나오든녀자요?』

『그래』

재호는 죄지은일이 업는지라 선선히 대답햇다。

—애라! 애라! 바로 그애라로구나!

명례와 애라는 녯날 보통학교동창이엇다。졸업하고나서 길이달려진뒤로 다시 한번 맛나본일은 업섯지 친히 놀든동무엿다。

—창가를잘하고 작문을잘짓고하든 애라! 풍편에 드른말은만치만 그러케 타락을햇나!

명례는 몽무의입이라 남의입갓지안케 가슴이저렷다。

『그런녀자어더살면 조켓군요。제것도가젓고 술도맘대로 먹을께고……』

명례는 아는내색을 안보이랴한말이엇다。

『갯적은소리……』

『당신자주가는데니 주소나아라둡시다』

『황금정일정목이야』

명례는 더무를말이 업섯는지 더뭇지안헛다。그리고 천정을 뻔히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만잇섯다。재호는 웃목에잇는 커다란 놋요강을 밀고와서

『자ㅣ 인제는 모든것을 다 해바첫고、사죄도햇스니 어서로 해』하면서 억지로 안어이르켯다。명례는 두손으로 방人바닥을짚고 맥업시 허리를 굽혓다。나 저녁도안먹은속이라 토해낼거리가업서서 큰걱정이엇다。

—딱나는일인데 토하기커녕속이쓰린데 웬좀먹엇스면?

『난 내대로 토할터이니 나가서 모과수나 한통사오구려!』

—무엇을 먹어는지는 모르나 모과수를 픽먹어야 사려나나!

시거는 네시를처다。벼락난 가개장이 아닌다음에야가개문을 여러노핫슬리 만무하다 그러나 재호는 죽을사람이 사려난다는바에야 안뛰어나갈수업섯다。

五日(水曜)

◇午後六時三〇分 端午問答 沈宜麟

◇同六時五五分 課外講座 哺乳動物과人生(二) 釜山高普 金敎臣

◇同八時 農村講話(總督府囑託 山崎延吉) 齊家의要道(三) 譯講 金玉鉉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春香歌中에서 李東伯 鼓手 丁元燮

◇同八時五五分 京城山打鈴 一、놀양 二、양산打鈴 三、뱃산打鈴 蘇完俊 柳開東 韓仁學

◇同九時一五分 京城坐唱 一、遊山歌 二、제비가 三、생매잡어(휘모리) 趙牧丹 李竹葉

◇同九時三五分 平壤念佛外 一、平壤念佛 二、山念佛 三、京西巨里 四、朴淵瀑布 五、방아타령 金玉葉 李眞鳳

六日(木曜)

◇午後〇時五分 和謠 李璟協

◇同二時 스포-츠講座 水泳에對하야(一) 李榮宰

◇同六時三〇分 피아노獨奏 一、워-털루의戰…앤더-슨作曲 二、사랑의속삭임…커-펠作曲 三、저녁頌作品二〇一番…칼하인쓰作曲 四、월쓰作品六十四의一…쇼팡作曲 五、자장가作品五十七…쇼팡作曲 李慶元

◇同六時五五分 農村講座 移秧과農家行事(一) 京農敎諭 金雄珏

◇同八時 農村講話(總督府囑託 山崎延吉) 齊家의要道(四) 譯講 金玉鉉

◇同八時三〇分 歌詞 一、白鷗詞 二、직軍樂 申花仙 李月色 大笒 金永根

◇同九時 花草四巨里其外 一、花草四巨里 二、報念 三、六字백이 四、興打鈴 五、개고리打鈴 高桂仙 高飛鳶

◇同九時三〇分 古談 車靑吾

七日(金曜)

◇午後〇時五分 吹奏樂 一、海外行進曲 二、百橋 三、愛好曲拔萃 四、제비가집으로나려갈때 五、行進曲 行旅 救世軍育兒院 뻰드 指揮 W·ド·노-벨

◇同二時 스포-츠講座 水泳에對하야(二) 李榮宰

◇同六時三〇分 童話 금비둘기 毛麒允

◇同六時五五分 農村講座 移秧과農家行事 京農敎諭 金雄珏

◇同八時 農村講話(總督府囑託 山崎延吉) 齊家의要道(五) 譯講 金玉鉉

◇同八時三〇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나、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 나、唱劇調 興夫歌 沈相健 韓成俊

◇同九時 寧邊歌外 一、寧邊歌 二、朴淵瀑布 三、漢江水打鈴 四、노래가락 中部中月 大笒 金明德

◇同八時二〇分 라듸오·드라마 長嘆曲 全一景 金昌基作 配役 夢雲處士…文秀一 그의딸寶貝…李春汀 朴巨髭…文東一 宋鳴河…宋夕映 解說李無心 演劇市場 指揮文秀一 效果文蟀餘

第一放送

▲午後〇時〇五分物語▲同二時趣味講座▲同六時(東)唱歌▲同七時三〇分(東)講演 ▲同八時(東)浪曲▲同八時三〇分(札)俚謠 ▲同八時五〇分(大)連續物語 되오·드라마

江上踏査記 (12)

鴨綠江의文化

—鴨江을끼고내리며(其二)—

李 殷相

中土의 그 文化가 저 黃河의流域에서 일어낫가티 로마의文化가 저 티벧의江海에서생겨낫가티 印度의文化가 저간지스河畔에서 싹시튼가티 埃及의文化가 저 나일江岸에서 떠저낫가티 朝鮮文化도 언제나 江을끼고 胚胎發育되엿슴을 보는것이니 저新羅의文化는 蚊川과瀾川에서 더저낫고 저 加羅의文化는 洛東江에 서리엇스며 저 百濟의文化는 錦江에서 울어낫고 저 高麗의文化는 禮成江、臨津江을 함께햇스며 저 李朝의文化는 漢水를 끼고 잇섯거니와、果然 이鴨綠江과 大同江은 七百年高句麗文化의 本源地이엇던것이다。

그中에도 이鴨綠江은 우리民族이 저大陸으로부터 東으로東으로 오던 그처음에 여기서 그初期의 發展을 보인것이다。 毋論 이鴨綠江의 文化的遺蹟이야 高句麗時代로 볼탑지라도 저平壤의大同江에 不及하는것임은事實이다。 그러면 어찌하야 高句麗의文化가 이鴨綠江에서 일어난채로 그實蹟에잇서서 大同江에 遜色이잇는것인가。 거기에는 두가지의 地理的原因과 한가지의 歷史的原因이잇슴을 말할수잇을것이니 두가지 地理的原因이란것은 첫재 江流에 急湍、淺瀨가잇서 交通에不便이잇슴이오、둘재는 流域의平野가 最近調査로도 六萬二千方哩에 不過하도록 넓지못한까닭이며 또그우에 大陸民族의外侵을 자주밧고 또일속부터 進南政策을세우고

都邑을平壤으로 옴기자 顧眄의길이 멀어젓슬뿐아니라 高句麗의滅亡이 다치게되든 後엔 더구나 外人의領域에 歸하엿던 까닭等이라 생각한다。 高句麗가 처음엔 이鴨綠江을 가운데두고 東北各千里의 大版圖를 가지엇든만큼 三國中에어 더보담도 强大하엿던것임은 勿論이나 ... 三百年 東川王時代에 ... 毋丘儉의 侵略을 입은것이 鴨綠江上의 첫風雲이엇스며 그後 隋唐의 二百萬大兵이 이江을건너왓섯고 마지막 高句麗의 운명이 도한 여기서된것이다。 그後 滿洲의全幅과 鴨綠江流域은勿論 大同江以北까지 다唐나라의 所有로되엇다가

高麗成宗年間에

와서야 겨우 鴨綠江以東을 내것으로 차지하엿스니즉 高句麗가亡한後 三百餘年동안을 남에땅속에서 이江이 흘넛든것이다。 高麗以後에도 大陸으로부터몃번이나 蠻族의떼들이 이江을건너와 내땅을 侵略하엿든지 一一히 헤기어렵다。 우리 옛民族의 發祥으로부터 오늘에이르기까지 이江上江岸군대군대에 끼처노흔 興亡盛衰의 애닯흔자취를 바라보고 밟아보고 생각해보는 지금 이行人의 어리석고 부질업슴을 꾸짓지말라。

歷代의史實을 생각하고 예將軍의 번득이는 칼빗을 바라보며 못을든채 나도한사나이로 주먹을 쥐어본것도 어찌할수업는

自己의本色이며

山넘어 구름속에 싸힌그대로 내城 옛都邑을 그리며서 내힘 내고운 내精神 내文化가 그날에 그러하든일을 생각하고서 흐려진마음 어두어진눈에 저도몰래 光彩가 나라남도 어찌할수업는 自己의 本情이오 威化島하늘우에 엉킨 怨恨의 구름과 蕭瑟萬里를 同하야 蕭蕭한 行色으로 이江을 건너가든 王子의 뒤를 지금도 分明히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눈시가이 뜨거워짐도 이또한 어찌할수업는 自己의本情인것이니、사람들아 이過後凡夫의 부질업고 어리석은 생각을 꾸짓지말라。

이鴨綠江으로써 國界를삼은지 九百餘年에 우리는 어떠케살아왓스며 저들은어떠케 살아왓든지

이江하나를사이에두고

白衣와 靑衣가 나뉘어 서로하고 優하고 劣할은 어떠헤던가 高하고 低한은 어떠헤던가。 한창시적 우리榮華 드놉흘때에 두집이아니오 한집이던 그날의이야기는 지금저西海의 어느 물거품에가서 차즐것인지 오늘은 江을끼고두언덕에 마주솟아 마주버든壯山連脈도 뉘가 더노프며 뉘가더기나 뉘가더아름답고 뉘가더壯하냐를 비겨보자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고나。 어떤史家、어떤詩人은 옛집일을생각하고서 兩岸靑山을 한집으로보자고웨칠이도 잇스리라。 그러나 아니다。 우리는 이제구태어라도 둘로보아야겟다。

現實도 제가벌서

둘이어니와 둘로보는意識이언제보다도 强하여지는날에야 나의 잘삶이 잇스리니、이것을 小人의 좁은생각이라 이르지말라。 나는 朝鮮사람에게 强烈한 比較心이 일어나기를 바라는것이다。

오늘의文學과文學의오늘

④……李 源 朝

그럼으로 文學上의 오늘이라는것은 『이때』와 『여긔』만으로 構成되는것이아니라 이러한오늘은항상 새로운 來日을바라보고 또한 來日을豫示해주는데에 文學을고마워할理由가잇는것이다。

이러한見地에서본다면 프로레타리아文學의發生할歷史的必然性이 여긔에잇는것이다。 그러나 過去에해동안에 그러틋 衝天의氣槪로서 勃興햇든 프로레타리아文學이 오늘날과가티 潛息의狀態에빠지고말엇다는理由는 어듸잇느냐? 勿論 여긔서 그重大한原因의 하나로서 客觀的情勢가 그러케만드럿다는것을 看過할수업는것이다。

그러나 한개의事實이消長하는現象을

單 純히 그客觀的所使의面에서만 보는것은完全하다 거어려운것이다。 그럼으로 오히려그主觀的原因은 무엇인가하는것을 살펴보지안흐면안될것이다

나는 우에서 現代文學이라는 일홈밋헤統括되는 文學을일러서 『이데ー를喪失한文學』이라고하엿다。 이것은 勿論 부르조아지ー文學이라고불러저야할것이엿다 그러나 여긔서 그名目에拘碍될것은업시 一方의文學이 『이데ー를喪失한文學』 이엿는데反해서 지금에말하려는 프로레타리아文學은 『이데ー의過多한文學』이엿다는것도 決코 한개의反語만은 안일것이다。

文學의새로운題材는 새로운形式을要求하듯이 그反對로 文學의새로운形式은 또한 새로운現實을要求하는것이다。 그러나 새로운現實이 文學의現實로되는데에는 現實이아닌現實로 變形을하고 또한變質도하는것이다。 그러나 現實이 文學上으로낫타나면서 變形을하는데에는

論 理의必然性과 感情의必然性이잇는것이다。

그래서 흔히 必然性이라고하면 論理의必然性을 일으는만큼 感情의必然性이라는것은 차라리偶然性이라고 불러질것이다。 그럼으로 우리가 大衆文學을볼때 그事件의構成이라든지 스토리의進展에 冷靜한理智로서 생각한다면 하나도首肯하기어려운 偶然的인것이면서도 오히려 『자미잇게』 읽을수가잇는것은 거긔에 感情의必然性이잇는때문이다

그러나 프로레타리아文學에잇서서는 그現實의變形하는過程이 論理的으로는 一定한必然性이잇스면서도 오히려 프로레타리아文學이 『꺽꺽하고 자미업다』는罪目밋헤서 斷罪되엿다는것은 文學이란다른科學과 달러서아모리

論 理的必然性의우에 構成되엿다드래도 오히려 그論理的必然性이 感情의衣裳을입지아코는 存在할수업다는運命을 가진것이다。

그러나 過去에수만흔 文學的勇士들이 얼마나만히 이文學의運命을無視하고 極左的段階까지 오르기에만 汲汲하엿든가? 이러는동안에 이데올로기ー의 上品과作者의 感情은 갈사록 分離해지고말앗다。

이것은 한가지의 重要한原因에서 考察할수잇는것이나 過去의프로레타리아文學者들이 대개가 그自身의測定에正確하지못하엿다는것을이저서는 안될것이다。 勿論 새時代에對한불다는듯한 情熱과 구든 信念으로서 새로운文學의陣營으로나아간것이 壯하다고하지못할것은아니나 프로레타리아文學의現實的題材는

生 產面에잇서야 할것인데 作者의生活은 生產面에서떠러지고 다만 理論의吸收에限定되여잇는 때문에 이勇士들도 프로레타리아文學者라는 榮光스러운일홈을 가지는데서는 勇敢하엿서도 참다운 프로레타리아文學을創作하는데는 얼마나 忠實하엿든지 의심스러웟든것이다。 다시말하면 그네들의作品가운데는 現實의論理的必然性은잇서도 作家의倫理性이라고할것이 浸透되여잇지안는때문에 그論理的必然性까지도 文學的으로 效果를 낫타내지못하고 다만 한개의化石과가티 되여버렷든것이다。 이러는동안에 우리는 프로레타리아文學의 젊은作家들중에서 小說을 못쓰게되엿다는悲劇的消息을 들은적도엿섯고 또는 이文學陣營에서

作 品보다 批評이 盛行한現象을 보앗다」 이러한現象은 어데서 由來하느냐하면 小說을쓴다는것은 먼저 自己自身을 客觀的으로 肯定하는때에만 可能한것이다。 우리가 맛치 平常時의 對話를 할때에도 한개의結論을 가질때는 먼저 그自身을肯定하지안코는 不可能한것과가티 小說이란 어떤한意味에서든지 現實에對한 한개의 結論이래야하는 것임으로 作者가 그自身을 肯定하지안코는 小說을 創作할수업는것이다。 그러나 인테리겐챠란 그關心이 프로레타리아ー트에게 잇슬때는항상 그自身을 否定하고잇는것이다。

다시말하면 自己의階級的存在를 이러나는 生生한 現實을볼때 自己의領分한 生活面이란 늘 無價値한것으로 생각해지면서 늘 自己自身을 否定하는때문에 小說을쓰지못하게되는것이다。

詩의製作過程

(午前의詩論、基礎篇續論)

詩 論 (4) 金 起 林

詩가 製作되는過程을 나는 이러케생각한다

1、生에잇서서의精神의燃燒
2、創造的精神
3、作品

結局은 詩作은 生의 복판에서 燃燒하고잇는 詩人의精神이 創造的精神이라는 藝術活動의틀을 통하야 그리하야 結實하는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말하는 生이라고하는것은 時代의色彩에 强烈하게着色된것은 勿論이다。

素朴한「로맨티시스트」들은 詩가 製作된다는말에 不快를느낀다。 그들은 꼿이 피는것처럼 그러케 詩도 사람의心속에서 피여나는것이라고 그들은본다。 그러니까 詩는 天才의參與에依하야 誕生하는것이지 製作되는것은 아니라고解釋한다。 即어듸까지든지 詩는

自然 發生的인것으로思惟하고 그것에서 目的意識을認定하지안는다。

이러한部類의詩는 暫間 우리의對像으로서는除外하고 오늘의 知識階級의손으로되는詩의 가장進步된領域에서는 그創造的精神에잇서서 實로 先代에 匹敵할바를 차즐수업슬만치 熾烈한것을볼수가잇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그들의詩는 生에대한 彈力을일허버리고잇는것도事實이다。 그들의精神은 生속에서불타기는거녕 오히려 그 重壓에 눌려서 바야흐로 꺼저버리려고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生의속에서燃燒되는精神을 喪失한詩는 그强烈한創造的精神의 一種의裝飾에 떨어지고마는것은 거진宿命的인일이다。 ○……○

그러나 生과詩와의關係에는 또한아래와가튼 限界가 잇는것을 니저서는아니된다

遺產으로서의 詩에잇서서는 그것을 思想과方法(技術)의두方面으로 區分해서 假想할때에 思想은 보다더 可變的이고 方法은 보다더 永續的이다。 그것은 詩의속에담긴思想은 곳時代에뒤지기쉬우나 어떤詩人이發明한 새方法은 무슨形式으로든지 다음代의詩人에依하야 繼承되고 活用되는것을보아도 明白한일이다。 例를들면 『모더니스트』에依하야 一部相續된것은 『부라우닝』의思想이아니고 그技術的成就엿든것은 누구나認定할事實이다 또한 이

一章 의冒頭에 提示한것은 心理的分析이고 事實로 詩의製作에잇서서 엄의大部分은 技術的實驗인것도 指摘할수가잇다 그러나 그러타고해서 技術的高揚만의詩를 맨드라고 獎勵하는것은아니다 우리는 조금도 다음代에남길「遺產」을「化石」만을製作할必要는 업다。 오늘의詩는 爲先現實의詩 산詩가아니면아니된다 산詩라고함은 思想과技術이渾然하게融合한 全體일것이다。 次代의子孫들이 그속에서무엇을 擇할가는 오로지그들의 自由意思에 맛길것이다。

故土訪問音樂會에出演할

在東京音樂家들의全貌 (26)

多色多樣의 테너ー歌人 李相春氏

★……내민요(民謠)와 가요(歌謠)를 내여버리고 남의민요만조타고 파고드는이도 잇지만 아모리 남의 민요를흉내낸다하드래도 그나라、그민족、그풍토에 저진사람이아니면 그나라민요가 가지고잇는 정조를드러내기가어려울것갓다。 조선에는 일종유행가가 민요와가티 자리를 밧구어 안진것가티 되엿스나 조선의음악가로서 이점에 눈을크게뜨고 뎀비지안으면안될줄 안다。

★……민요、가요의 섬세한 뉴안스를 교묘히 잡는 점이라든지、고흔 음색의일종어두운 애수(哀愁)와 우울을 가지고 그연창에새채적 변화가다채다양한창동이 이태리가인 스키파를 련상케하는 테너ー가인 리상춘(李相春)씨는 동경에서 평간문수(平尚文壽)씨와 그라더려선생의미테서 성악을연구한이다。 리씨는 부여(扶餘)에서 난이로역사적으로 바든 그우울성과 고토에대한밀할수업는 애착、메허에서 밧는애상、이리하야 그는갈대닙하나 엣허려진 주추미테 풀한포기를보고도 예술적감정이 이러날것이니 리씨가민요에 머리를쓰는것은맛당한일이다

★……이태리의 호흡을 드르라면 카루소나、스키파에게귀를 기우린다면 조선의호흡은이리씨에게서드를날이 멀지안흘것이다 리씨는 전생을이에 밧칠것이요 조선의민요가 세게악단에소개되도록 노력하리라고미더도조흘것갓다。

朝鮮의地理的變遷

"四" 天台山人

그러나 自然과싸우는 手段이 變하고 技術이發達하야감을따라서 그들의經濟的利益이變함과함께 社會組織도變하는것이니 이에 原始農業과 牧畜은 氏族組織의 崩壞하는사이에 生長하엿다、周圍의氏族組織을떠나서獨立的經濟를 正히引導할必要가난다。 그리하야 昨日의規定과慣習과氏族의 排他的閉鎖는消滅하여버리고 이에代하야 氏族의全系列間에는 새로운組織의 連絡ー새로운經濟形態를引導하는데必要한것이 發生한다、一氏族中에서만 結婚한다는嚴格한規定도反對로 인제는自己의氏族의것도結婚하는者를 違背者로 헤게된다。 氏族神은 새로운神을ー數多한氏族을 統一한 新社會組織의主、護者ーー에 그地位를讓하고後退한다 이리하야 技術의發達과 그基礎우에나타난 새로운經濟的利害와 相須하야 社會關係의 新形態가創立되고同時에 古氏族制度는 破綻되여 이에種族組織이發生된다

社會의 分業이다시發展함을따라 交換關係가생기고 그리고 그는種族組織의좁은 構內에서 出口를求하야 同時에商業資本의發生과함께 古種族組織은새로운經濟의矛盾하게되다 그리하야 諸種族中에 統一된氣運이 나타난다 새로운經濟的利益은 새로운「이데오로기」生活과 새로운社會的組織의槪念을 喚起하야 種族的閉鎖主義 乃至種族의 慣習과民族과 神에對한싸옴을 惹起하야 이리하야 民族이나타나는 것이다 民族이라고 統一된新形態는 資本主義의 擡頭에 依하야 나는 새로운 經濟的 相互關係우에成長한다」 그러나 民族(英 People, 獨 Volk, 佛 Peuple)은 實際的見地에서는 때로는種族、人種、國民과混同하야 쓰는曖昧한用語가

教授만二千名

미라노의學徒가되면서 (3)

〔미라노에서〕 李 寅 善

-音樂의本鄕인- 「미라노」를차ㅅ서

○……○ 오늘先生을作定하고 第一回教授를비덧습니다 先生은 마에스트로체키ー(Alberto Oreo)氏로서 現在 라스카라座에名歌人들을가라처내엇고日本의藤原義江씨도氏에게배웟고 其他三人도氏에게배왓다는데 伊太利에서 名聲놉흔이라합니다 미라노에 音樂先生의數爻를 모르니까 일홈잇는先生이 二千名이니 그外에모를先生이 얼마인지모른다고합니다 체키ー氏는六十才넘은老人인데 한때는伊太利天地를 震動식히라는바 弟子가만허서 判드러서 자 죽ー느러안진것이 弟子들인데 雷聲가튼 소리들을지르고잇습니다

○……○ 十二月 二十六日 크리스마스翌日부터 라、스카라座에서 歌劇이시작된다는데 約二個月間에三十餘種目의歌劇을 上演한다는바 大槪가 리고렛、파우스트、라、죠콘다等의名歌劇이요 歌人은 질리、스키파其他世界名歌人들의總出演이라합니다 이歌劇은 늘ー 잇는것이아니라十二月翌年三月까지가 歌劇씨ー슨이여서 그동안에만잇는것이랍니다 지난日曜日에 칼멘과그同伴一人의案內로 미라노의有名한 두오모(미라노의寺院)를求景햇습니다 繪畵、彫刻等 驚異의藝術品들이 만허습니다

○……○ 엇재든 내가 미라노에와서 敎을만히밧고잇습니다 그寂寞한朝鮮에서 홀로애쓰든 생각을하다가 이곳에오니 그만 나도『미라노』에 래여난사람가티내血脈으로 달리는곡들이 팍저들과 가르리란곳집이 잇습니다 그러나 朝鮮을떠날때는 괴로운곳을떠나는것이라하야 시원도 햇지만 이곳에오니 예집이ー 아들이라는것을 禁키어려운것입니다 어서어서 배와서 故土에서서여러분의아페서 노래하고 십습니다 이것을제가 어듸를가나잇겟습니까、조금도 念慮마십시요 그리고 저를버려주지 마십시요 全力을 다ー하겟습니다 제平生의事業은 이것밧게는 업습니다 이것이 내게잇서서 無貴한 여러분과 無言의約束을 한것입니다 여기서 여러가지前程에 對하야 애써주는 李應兄에게도 感謝를 드리는바입니다。 지금도 朝鮮日報社後援의 告別音樂會의 그밤은 이처지지안습니다 아마平生토록 잇지못할 感激의 날이엿슬것입니다。

○……○ 엇저다가 이곳의 新聞을 보다가 日本의 女流聲樂家 關屋敏子氏의 評이낫길래 자른伊語로 억지로 뜨더보아도 우수웟습니다 關屋氏의 노래는 「알낫는 암탉의 우롬」이라고 評하엿습니다。 사나희들의 險口란 이런것을 가지고입할이지모르나 當者가이것을보앗다면 어떠하엿슬가요 나도 이런데에恐怖를 늣기엿습니다 日後에 내게對한 評은 어떠할는지 그러나 나는지금부터 서운決心을 가지고잇습니다 또敎授가말한것도 잇서서 나를스사로慰撫하엿습니다

海州支局主催

藝術問題講演

六日夜海州會館에서

【海州】 본사해주지국에서는 한때동경미술가협회(東京美術家協會)동인으로잇든 미술가(美術家) 정하보(鄭河普)씨와 신진논예가(文藝家)민병휘(閔丙徽)씨의 래해를기회로하야 오는六일오후팔시반부터 해주회관(海州會館)에서 독자위안예술문제강연회(讀者慰安藝術問題講演會)를 개최키로하엿는데 연제와연사는다음과갓다

▲演題와演士

一、朝鮮演劇運動의動向 閔丙徽
一、朝鮮畫壇의展望 鄭河普
一、朝鮮文藝運動의現階段 安含光

新刊紹介

▲文化農報 六月號 東京市麴町區丸之內一의八 株式會社文化農報社發行 振替東京五七三六四番 定價二十錢(和文)

▲朝鮮銀行統計月報 一月分 京城 朝鮮銀行發行 定價五十錢

▲農村通信 第□號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長老會總會農村部發行 振替京城一九六四一番 定價一部五錢

▲時代像 五六月合號 京城府 ... 時代像社發行 振替京城一六五六七番 定價三錢

▲中央 六月號 京城府 ... 朝鮮中央日報社發行 振替京城五五七八番 定價二十錢(送料二錢)

黑風 145

韓龍雲 作 金熊超 畫

강도(强盜)(二)

왕한과 상철은 자동차를 타고 하주로 향하는대 서호의긴 뚝을 지나게되얏다 두사람의 감상은 각각 자기의 지나간 일을 생각하엿다 상철은 버드나무밋헤서 영애를 전송하든일을 생각하고 왕한은 상해에서 직업을 구하다가 실패하고 도라오든일을 생각하얏다 자동차는 어느결에 항주시가를 거처서 은석의집 대문압헤 이르럿다 두사람은 자동차에 나렷다 자동차는 기다리고 잇스라고 하얏다 왕한은큰소리로 주인을 차젓다 하인이 나오더니 명함을 청한다

『우리는 명함도 업는사람이오 그저손님이 왓다고하시오』

하고 왕한이가 말을 하얏다

『그러치 안습니다 명함을 드려보아서 승락이 잇서야 면회를 하십니다』

『그러면 명함이 업는 사람은 볼일이잇서도 언제든지 면회를할수가 업단말인가 잔말말고 나의말대로 엿주어』

하는 왕한의 형세는 자못험악하얏다

하인이 살펴보니 두 사람이 자동차는 타고 왓스나 그들의 의관이라든지 모든 차림차림이 대단치 아니하고 그행동이 수상하게 뵈엿다 부자집하인으로 손님의 접대에 경험이 만코눈치가 빠르니만치 그들을 거절할생각이낫다

『명함이 업스면 말로라도 성함을 일너주시오 그러고 면회라는것은 강제로하는것은아닙니다 그러고 지금주인나리도 안계십니다』

하는 하인의 표정은 냉담하얏다

왕한은 하인의 주인이업다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얏다 자기를 거절하라는 하인의거짓말을 드른 왕한은 당장에 상기가되야서 얼골이 붉어지고 머리털이 밤송이처럼 이러섯다

『못된놈의 집에는 하인놈도 아니꼽구나 요 쥐새기가튼놈아』

하고 한손으로 하인의면상을 잡어서 문안으로 던저서 태질을치고 사랑으로 뛰어드러갓다 상철이도 따라드러갓다

사랑에 안젓든 은석은 깜작 놀나서 몸을 피하라한다

『가기는 어대를 가랴고하니、거기좀 안저라』

하는 왕한은 은석이팔을 잡어서 주저안친다 은석은 조금도 반항하지 못하고 주저안지면서 울고십흘만치 압흔것을 깨다랏다

『네가 왕은석이지』

하는 왕한은 은석을 당장에 통으로 삼킬듯이 노려본다

『예 나는 왕은석이오 그런대 당신네는 누구며 웬일이오』

은석은 놀나고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하얏다

『응 나는 서호사는 서순보의 아들 왕한이고 이사람은 리한국의아들 상철이다 그만하면 알것니』

하고 왕한은 은석의압헤노힌 비취옥책상을 주먹으로 한번치니 그책상은 폭발탄마진 어름조각처럼 산산히 부서저서 사방으로 흐터진다 그것은 왕한이가 먼저 은석의기운을 빼앗기위하야 짐짓한일이엇다 그리하고 딱 버티고안진 왕한의형세는 개를 노리는 호랑이와가텃다

은석은 놀날대로 놀나고 겁이 날대로 나서 사지에는 맥이풀니고 정신은 희미하얏다 그리하야 어쩔줄을 모르고 넉빠진 사람처럼 벌벌떨고 잇섯다 왕한은 더욱 룹기내어서 은석의압으로 다거안지면서 주먹을 흔드럿다

『이놈아 너는 어떠한놈이기에 사람놈으로서 그러한 못될일만 골나가면서 행한단말이냐 이주먹으로 당장에 때려죽이겟스나 나의주먹은 너가튼더러운놈에게 쌈을부칠것이아니다 너가튼놈은 룹기를 때려야 맛당하겟다』

하고 상철을 도리보면서

『네 이놈을 잡어나려서 돌아

이저버려ㅅ던 자미난問題

懸賞 誰が一番頭を使ふか?

本社의全部熟讀한後、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左의 項中어느거에든지 投票하십시오。

◎一家의主婦(家庭主婦)
◎學徒(大中小學生、科學者、敎育家)
◎執務家(銀行會社員、商店員)
◎棋客(囲碁將棋界의분)
◎藝術家(文士、畫家、音樂家、歌人、彫刻家、俳優)

賞金

一等	百圓	三名
二等	三十圓	十名
三等	十圓	三十名
四等	五圓	五十名
五等	一圓	五百名
等外	はれやか待針	殘全部

規定

◎上記五項中自己가 웃에올라는 一項을回答用紙에明記하야 主하십시요。 ◎官製はがき에 ... 新聞으로回答할때는自己가 ... 封筒에二錢切手를부치십시요。 ... 封緘三錢切手。 ◎賞品은 ... 多數인境遇는抽籤으로各等入賞決定 ◎締切ー六月末日 ◎보낼데ー東京銀座一ノ七九 日獨醫化學研究所懸賞係

내가實行하고잇는 頭腦의調整法

聯珠第三世名人 高木樂山先生 (談)

高木樂山先生은我國聯珠(五目버리기)界의權威者로第三世名人으로推仰하며聯珠에關한幾多書籍을著述하신것은여러분도아시는바와갓습니다。

우리들의日常은時間的으로不正確하야 對局과原稿의形便上 밤샘을하는수가往往잇는狀態로 健康의點으로말하면 퍽無理인줄을알고도 繼續하는일이만습니다。 그러나몸은 젊어서부터 튼튼하야 四十이나된今日에도 그다지 念慮는안습니다마는、頭腦의 컨디슌을엇기는좀처럼 잘되지 안습니다。

特히近者와가튼氣候에는더구나睡眠不足가튼것은곳思考力에影響함으로困難하지마는 約束한對局과原稿의締切은그것을기다려주지안음으로그러한境遇에는언제나 頭腦의調整에퍽苦心합니다。 그러나、日前에그누구에『はれやか』(하레야가)를勸함을늣고써본後로는俄然…이것만잇스면무엇이고덤벼라하는一種安心이생기엇습니다

以前부터頭腦에는注意를해보앗습니다마는 一長一短이잇어、適當타할것이업더니 이번은念慮업습니다。 나의經驗으로는 한點을노키에 八時間十몃分이라는 長時間을생각한일도잇고 一時間이나二時間의熟考를 必要하는따위境遇는 흔히잇는일인데 이러한때에도 이藥은어데서든지 안될것이라고 지금은 언제나座右를떠나지 안케합니다。

附記

頭腦를쓰는時間이만흐냐、身體를쓰는時間이만흐냐ー엇는쪽인지 대답할수업는質問갓기도하지마는、複雜한、그러고바쁜現代에生活해가는 우리는누구나身體보다도頭腦를쓰는것이만습니다。

그런데우리들이몸이疲勞하거나病이들거나하면곳榮養食이라든가 營養劑라든가를 생각하면서頭腦의養分이缺乏하야頭痛眩暈이나거나神經衰弱히스테리ー가되어도지금까지한번도頭腦의榮養을주기로생각해본적이잇는가。

그러기는커녕痛症과不快로부터速히逃避하라고만하야解熱劑를主劑한一時的인鎭痛劑를濫用하야胃腸障害를招致하는것이常識이엿다。

『はれやか』(하레야가)는이러한缺點을憂慮한日獨醫化學研究所가頭腦補强의榮養으로 腦細胞素이同時에頭腦를作用케하는原動力이되는燐及칼슘을根幹을삼고頭痛齒痛에速効잇는數種의藥과健胃整腸劑를巧妙히集成한頭腦補强藥입니다。

本劑의特長은지금까지의頭痛藥의最大缺點인胃腸障害의副作用이업슬뿐아니라도리혀胃腸을튼튼케해가면서腦神經에充分한養分을補給하므로 頭痛、齒痛、히스테리ー、神經衰弱等에爲始하야各種腦症狀에病因的인 好作用으로써作用하는關係上効果가永續하는點입니다。 特히胃腸과感氣에基因하는 頭痛、眩暈、宿醉等에는 다시업는 適劑입니다。 또『はれやか』(하레야가)의 藥價는粉末錠劑共히二十錢、五十錢、一圓、二圓、三圓ー全國各地藥店에잇음。

一滴千金의喜雨 南北各地에霈然

咸興地方에는 今年初有의豪雨

【咸興】 함남도일대 농가에서는 오월하순부터 일제히 이앙(移秧)을 시작하엿는데 련일의한발로모판에물이업서서 수수방관만하고곡도의우려에싸혀잇는바 삼일오후한시경부터 일적천금의감우가때연히쏟아지기시작하여 삼일밤종야나리고 사일아층에야 개이엿는데 이번우량은다음과가튼 금번초유의호우로 이앙에는 아무념려가업게되여 농가에서는 겨우수미를열게되엿다고한다

高原 七二、四粍
咸興 四二、二
北靑 三二、〇

雨量의過多로 苗板全滅狀態 通川農民憂慮

【通川】 통천군일대에는 지난이일밤부터 내리기시작한비가 삼일까지 계속쏟주하야 마층내홍수를보게되엿는데 각처에 제방(堤坊)이 파괴되며 묘판들을튼이앙답까지전부휘쓰러노와 농작물이라고는 전멸상태에빠젓슴으로 일반농가에서는 흉작을면치못하겟다고극도로불안에싸혀잇다고한다

喜雨끄테 豆大雨雹 洪城地方에

【洪城】 한발이심하여 묘판이구럼되며 경수까지고갈케되여농부들은묘판에물을대인다풀는다하고 보리는거마르다고 소동하든중지난이일밤부터 희우가내리기시작하여사일오전칠시까지내린비는희색이만면하든바 의외에도물가농사에흉족할으로 일반농민들은연강풍이이러나고 풍우가 내리며때아닌농작만시한우박이오는간이나내리어 성숙기에잇는 보리에피해가불소하다고한다

錦山地方에도 移秧에洽足

【錦山】 전북금산지방은 그간한발이계속하야 전혀이자리지못할뿐외라 이앙을못하고잇게되야농가에서는 무한비오기를기다리든바 지난삼일아침부터 비가시작하야 지금까지나리는데 이앙에는아직부족하나 좀더오면 이앙은충분하리라한다

開城中央幼稚園에 現金千圓式喜捨 孔、林兩氏의特志

【開城】 지난일일에 개성부북본정공성초(孔聖初)씨와 남본정림한조(林漢祖)씨는 중앙유치원에 현금일천원식을 희사(喜捨)하엿다한다 원래중앙유치원은 고려녀자관(高麗女子館)에서 경영하여오든것이 소화십년부터는 재정난으로인하야 선교사회(宣敎師會)에서 경비를지출할수업게되여 일시는존폐문제까지 대두하엿다가 유지 명문의 원조로근근히 오날까지 지속하여왓섯스나 긔본금이 충실치못한관계로 늘 경영상곤란함을 목도한 전긔량씨는 그와가티 거액을동유치원에긔부하엿다한다

本社新築記念 映畵大會開催 江華支局主催

【江華】 본사신축락성긔념으로본사강화지국주최와 화신강화련쇄점후원하에 영화대회를 개최하기로되엿는바 료금은 대인사십전、소인이십전이라하며 본보독자에한하여는 반액으로 제공케되엿다한다

身病悲觀自殺

【水原】 오월삼십일일 오후팔시경 수원군대장면인계리(水原郡…)…도합지로…고 그날그날연명하야오든바 병세는점점 더하야가고살어갈희망은 조곰도업다는것을비관하고 동일오후삼시경 그의처가업는틈을타서 쇠도로가슴밋을찔르고 고민하는것을 그의처가보고 곳의사의치료를 바덧스나 결국은 오후팔시경에절명하엿다한다

鄕校文庫에 書籍을寄贈 崔極連氏美擧

【利原】 함남 리원군남면차호항(利原郡南面遮湖港)에 거주하는 최극련(崔極連)씨는 차호교육사업과 사회사업에 적지안흔금품을긔부하엿다함은 일반이주지하는바어니와 금번씨는 특히리원향교문고(利原鄕校文庫)에 가격일백사십원의서적 내각판사서오경(內閣板四書五經)일백실질을지난일일 당지향교에긔증하엿스므로 일반은더욱히칭송이자자하다한다

"엡웟"音樂部主催 初等校懸賞音樂 本報仁川支局後援

【仁川】 긔독교단체로 사회사업에 만흔공헌이잇는 인천내리(內里)례배당 "엡웟"청년회에서는 본보인천지국후원하에 인천초유의 전인천초등학교 현상음악대회를 좌긔규정에의하야 오는칠월팔일 내리례배당에서 개최하리라는데 만흔참가가 잇기를바란다고한다

一、資格 仁川市內에在한 初等學校(學院또는主日學校도包含)
一、種類 合唱團(男女)(每校一團 十名乃至二十名) 獨唱(男女)(每校三人以內) 遊戲(女)(個人出演으로 每校三人以內)

元山의端午노리 脚戲鞦韆大會

【元山】 단양가절을 긔하야 원산에서도 원산제이소방조 주최와 본보원산지국후원하에 각희대회와 추천대회를 성대히거행하리라는데 그대회가 긔간중에는조선고래의 자미스러운'탈춤'노리가 밤마다 열리리라고하야 대성황을 예긔하고잇다는바 각희대회와 추천대회의 시일장소급상품은 아래와갓다고한다

◇脚戲大會
時日 陰五月六、七兩日間
場所 元山海岸埋立地五星商店後便
賞品 一等大牛一頭 二等中牛一頭 三等白米二叺及廣木一疋 四等白米一叺廣木一疋 五等白米一叺白木一疋 六等白米一叺

◇鞦韆大會
時日 陰五月八、九兩日間
場所 右脚戲大會場과同합
賞品 一等金指環 二等腕卷時計 三等眞鍮火爐 五等眞鍮洗器 六等日傘 其他各等附屬賞品

三代獨子가 機關車에轢死

【咸安】 지난일일 함안수리조합제방공사장에서 『가소링』긔관차의 전복으로 운전수김창…조수(助手)경북선산군선산면리문리(善山郡善山面里門里)홍봉수(洪鳳壽)(一八)는 긔관차미테치여 즉사된 참상은 긔보하엿거니와 즉사한 홍봉수는 삼대독자로 가정에는팔십세의 조모와 모친김씨(金氏)와 누이동생이잇을뿐으로 그모친김씨는 선산향리(鄕里)에서 급보를밧고 일할안에 낫하나서 죽은자식의 시체를 부여잡고 호천통곡으로 가두에서 밋칠듯이 헤매이는광경은 참으로 눈물이업고는 보지못하겟다고한다

腸窒扶斯發生

【金浦】 김포군군내면북변리에 장질부사(腸窒扶斯)환자두명이 발생하엿스므로 당지경찰은검병적호구조사를하는등목하방역에노력중이라한다

◇寫眞…全滿蹴球大會優勝팀一同

故金昌賢翁遺産 八萬六千圓을處分 崇德學校에 又復四萬圓爲始 幼稚園等各團體에分配

【寧邊】 평북녕변이나은사업가고단원김창현옹(故檀園金昌賢翁)은 생전에 십륙만원가치의 토지를 녕변사립숭덕학교(崇德學校)에자진긔부하야 동교의 재단법인설을 촉성하엿고 또다시팔천여원을희사하야 단독으로공회당을 건축한것은 세인이잘아는바어니와옹이세상을떠날때 유산팔만륙천여원을 사후여러공공단체에 의의잇게써달라는 부탁으로 홍재경(洪在璟) 최경일(崔鏡一) 김병제(金秉濟) 김봉주(金鳳柱) 한상래(韓相來)등오씨에게유언공정증서(遺言公正證書)를하여두엇든바전긔오씨는 옹의유언에의하야 지난삼일정오부터 읍내김창현긔념관에서 유산처분회의(遺産處分會議)를거행하고 다음과가치분배(分配)를하고 일동은 오후다섯시경오리면봉무동(梧里面鳳舞洞)에잇는 고인의분묘(墳墓)에 참배하고도라왓다는바옹은 어려서부터 세상을떠날때까지오직근검절소로서 거액의재산을저축하야 전재산을 교육과사회사업에희생하엿다고한다

崇德學校 四萬圓
崇德幼稚園 五千八百圓
寧邊面 一千七百圓
寧邊文武會 一千七百圓
親族 一萬五千圓
體育協會支部 三千五百圓
佛敎布敎堂 基督敎 郡廳 警察署 普通學校 小學校 農業學校 崇德女子普校各五百八十圓
殯儀費와其他

六百餘災民에게 食糧을無償配給 寧遠郡有志의美擧

【寧遠】 평남녕원일대에는 량년의 냉해로인하야 폐농을당한리재민의 참상은긔보한바와 갓거니와 평남도당국의 알선으로다소의구제가 잇섯스나 홍로점설의격으로 분배하여준곡식은 모다먹어버리고 최근에는 주린창자를채울것이업서 사선에서방황한다는바 이참상을본 덕화면(德化面)유지강시황(姜時璜)씨외사십여 유지들은 현금일백구십칠원을모아 옥촉서(玉蜀黍)륙십여두와 대두(大豆)륙십여두를구입하여 지난달삼십일일동면사무소에서 중흥리(中興里)외륙개리 백십구호의 가족 륙백십사명에게 대두、옥촉서를 매인당일승식비례로난호아주엇다는데 그씨명은다음과갓다(單位錢)

姜時璜 一〇〇 張龍燮 一〇〇
李國衡 七〇 吳炳熏 七〇
朴贊俊 三〇〇 安燦植 三〇〇
尹潛鎔 三〇〇 趙基永 一〇〇
金明錫 一〇〇 劉吉恂 三〇〇
李瀧龍 一〇〇 姜永濟 六〇
鄭一富 五〇〇 韓昌普 一〇〇
金貴善 一〇〇 朴用齊 一〇〇
蔡瑛默 五〇〇 韓國恩 五〇〇
蔡化默 三〇〇 康仁恒 三〇〇
金泰植 一五〇 李泰鎔 一五〇
崔致恒 二〇〇 金秉勇 一〇〇
文祥憲 一五〇 安永祥 一五〇
安永淳 八〇〇 金成浩 一〇〇
文祥默 三〇〇 康仁洙 一〇〇
朴仁煥 三〇〇 鄭基柱 三〇〇
趙炳河 七〇〇 韓炳俊 五〇〇
朴興秀 二〇〇 兪致鴻 三〇〇
梁有觀 三〇〇 高德鳳 三〇〇
孫昌裕 三〇〇 林士弼 三〇〇

笙極公普校記念式

【陰城】 음성군 생극공립보통학교에서는 지난오월이십오일 동교창립긔념일을 당하여 오주년긔념식을 성대히거행한후에 이미학예회를 개최하야 각학부형에게 만흔환영을밧고 오후오시에 무사폐회하엿다한다

宗山팔아 먹엇다고 門人이作黨打殺 加害者는警察에被逮

【錦山】 전북금산군복수면수영리삼백륙십일번지(錦山郡福壽面壽永里)김병수(金炳洙)는 지난오월이십구일 오전십시경에 동리에거주하는 김택수외삼십명에게 곤봉과철구대로마저 무참히도 즉사한사실이잇다 이제그자세한말을들으면 전긔피해자가자긔명의로잇든 문중선산(先山)을팔아먹엇는데 이를알고 분개한친척들중 전긔가해자외 수명이작당하야 피해자의집을 습격하야 가산집물을산산히 파쇄하고 이어전긔 김병수를집아 곤봉과철구대로 무수히란타하야 좌편두부에 깁이삼촌의상처를 내여무참히즉사하엿다 급보를접한소관주재소원이 현장에달려가서가해자수명을 체포하여 방금엄중취조중이라한다

公州支局主催 三大記念事業 八景募集/經濟講演/庭球大會

【公州】 본사신사옥락성긔념사업으로 본보공주지국에서 남조선명승지공주팔경(公州八景)을현상모집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남조선개인정구대회(南朝鮮個人庭球大會)와 경제사본보주필서춘(徐椿)선생을 초청하야 경제강연회(經濟講演會)를개최하기로 제반준비중이라는데 시일장소와 정구대회규정의상세는 추후발표하리라한다

新京筆友會發起會

【新京】 이십오일 하오일시 시내마봉일본자 회의실에서 각신문지 책임자들이모여 조선문긔자 필우회조직발긔회가 잇섯는바 창립총회는 오는십일일이며 모든규약도 그시에정하기로 되엿다한다

發起人 金東曉(滿蒙) 李啓白(中央) 崔衡宇(東亞) 淸永欽(朝鮮) 同(鮮滿)

地方人事

▲李亨稷氏(溫井普校訓導)城南普校長榮轉人事次本社古邑支局來訪

安邊釋王寺에서 男女情死企圖 女子는이미絶命

【咸興】 지난일일오후네시경함남 안변석왕사(釋王寺)설봉려관(雪峰旅館)에투숙한함남의 청춘남녀가려관방문을닷친대로 이튼날 오후세시경까지 이러나지 안으므로 려관주인이 이상히녀겨 문을열어보앗드니 녀자는이미절명되여잇고남자는혼수상태에빠저잇스므로크게놀라즉시부근의사를 불러응급 수당을가하엿스나 아직도생사를 예측치못할바 위독한상태인데조사한결과 남자는함흥부조일정 일백십구번지황군삼(黃君三)(假名)(二一)이며녀자는동부황금정일정목일백사십칠번지박정빈(朴貞彬)방의작부리정숙(李貞淑)(二七)으로판명되엇는데 이두남녀는 오래전부터상사의사이로그정이매우 깁헛다고하는바 이번원인은자유롭지못한작부로이세상에서는 도저히사랑을이룰수업스므로 천국에나가서자유롭게사랑을속삭이려는생각으로 전긔려관에서 다량의아편(阿片)을먹은것이라한다

그女子의一生 春園 作 夕影 畵 【123】 婚姻篇

느것도 또한 당연한 일이라는것을 승인하지아니할수 업섯다。무슨 염치로、무슨 자세로 금봉이가 이 불행을 당하는 것을 앙탈하랴—이러케 금봉은 깨달앗다。

『옵바、옵바 내가 잘못햇수。내가 옵바에게 성을 내어서 못햇수。』

하고 사죄하는 진정을 표하라는듯이 손ㅅ길을 마조 비볏다。

인현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어쨋스나 기막힌 일이다。아버지는 저러케시고 너는 또저 꼴이 되고』

하고 또 쉬파람 불드시 한숨을 내어쉰다。그는 한숨을 쉬는 습관이 된것이 엇다。

『왜? 아버지가 또 어떠케 되섯수?』

하고 금봉도 새로운 근심을더 하엿다。

『흥。아버지는 하느님이 막 이 나신술로 꼭 밋으시는 모양이어든。하느님이 망녕이 나셧스니깐 죄를 지더라도 하느님이 그것을 벌할 생각을 이 저버리거나、혹시는 죄ㅅ값으로 봉을 주는수도 잇는것가티 생각하시는 모양이야—아버지가 망녕난 하느님이니깐 조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벌도 꼿잘 주고—아버지 자긔모양으로말야。그러길래 도모지 고칠줄을 모르시지。』

『왜? 아버지가 또 어느 여편네를 건드리섯수?』

하고 금봉은 아버지의 버릇을 생각하며 웃는다。

『웨 아냐? 어멈? 어멈을 또 건드렷단다』

『어느 어멈? 다른 어멈?』

『김서방 여편네를 건드리다가 또 김서방헌테 들켜서』

『언제?』

『한 열흘되엇지』

『그래서?』

『또 고소한다구 별르고잇지』

『고소도 안 하구?』

『아직은 얼르기만 허구 잇지 집안은 난가구』

『아이 저를 어째?』

『무얼 어째?』

『아버지가 못들려가면 어떠커우?』

『못들려가는게 올흔것 갓허전 번에도 쾌니 비돈만 업새구나』

『어쩌면 옵바두 그러케 무정허우?』

하고 금봉은 마층내 성을 내어서、

『동생이 우는 것을 보고 가티 울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어쩌면 씩씩 웃고 안젓수?』

하고 낫츨 붉힌다。

『금봉아』

하고 그제야 인현은 부드럽고 다정한 음성으로、

『먼저 웃을 일을 웃고 나서 울 일을 울자꾸나。어듸 울일이 이 세상에 한、두 가지만이냐。허지만말이다。네가 우는 일은 조고마한 일이고、세상에 그래도、아직도、인과의 원리가 살아잇다고 하는것은 큰 일이어든。인과의 이치가 아주 죽어버리는 날이면 우리에게 전연 희망이 끈허지는 날이란 말이다。하느님이 망령이 나신단 말이 잇거니와 정말 하느님이 망령이 나서 잘하는 놈을 못되게하고 잘못하는 놈을 잘되게 하게—그처럼 하느님이 망령이 나섯다고 하면 우리는 몰일 다 본것이어든。그런데말이다。우리 아버지 되시는 꼴을 보고 또손가가 되는 꼴을보면 하늘이 아주 망령이 난것도 아니란말야。그러니까 당장 내 아버지가 망하고 매부—그것도 매부는 매부지—매부가 망하는것을 보는 것이 가슴이 아픈일이지 더구나 아죽 어린애가튼 네가—내가 이 세상에서、오늘까지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네가、네 말대로 쫄딱 망하는양을 보는것이야 피눈물이 날 일이아니냐。그러치만 세상 이치만 아주 죽거나 미처버리지만 아니하면 네나 내나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잘 될수잇다는 희망이 잇단말이야。세상도 바로될 희망이 잇고。그러니깐 내가 우선 웃는것야、깃버서 웃엇단말이다。』

하고 인현은 마치 울 준비를 하는 모양으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으린다。

인현의 말을 듯고 금봉은 지금까지 옵바에게 대하야 노염을 품엇던 제 천박함을 뉘우첫다。비록 절반 미친 사람의 말 가튼 인현의 말이지마는 그 속에는 깁흔 진리가 품겨잇는것 가티 금봉은 느꼇다。남편이 벌을 밧는것도 당연한 일이오 금봉이 자신이 벌을 밧는 그때에 무사하게 해결한것을 도리혀 후회하고 잇다。『빗을 물고 바른 벌을밧고—그래 몸 빗은 몸고 바른 벌은 밧고—그러는게야 그래야 이치가 살지안니? 벌바들사람이 벌을 안밧고 잇스면 세상이 친해』

하고 인현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콜럼비아레코-드 Columbia 콜럼비아蓄音機

樂器界의重鎭이고 樂器店으로元祖인 平壤南門通 常信樂器店

「寫眞은」(平壤鍾路·常信樂器店)

여러분들의試聽室로!! 오시여試聽하시요!!
平壤鍾路 常信樂器店 電話一七三二番

登錄商標 선북거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一一五九

家庭의和樂 元素 家傳秘方 調經液
婦人病赤白帶下症과特히産後諸症及食慾이不進하야調理不足하신姊妹는 一次試用해보시어다捨此而求何오定評있는服藥後라야自生할것이즉批判을歡迎합니다
調經液定價三圓、送料五十二錢海外六十二錢
特約店代理店募集
發賣元 調經液 紳香膏 江景邑黃金町四一 本舖 勉堂商會 振替京城一七一八五番 (說明書請求次第進呈)

官認 大田寫眞學院 第二回生徒募集
志願締切期日 六月十日迄 開學日 六月二十四日 (學則要三錢切手) 三個月卒業
技術者에失業업다
大田邑大興町

天下一品 鮮滿第一 キッコーマン醤油 깃고만간장 キッコーリウ醤油
景品附大賣出し
優良한醬油에다優良한景品
十六立詰一樽을사실때마다 아지노모도(小瓶)一個
八立詰一罐을사실때마다 아지노모도(特小瓶)一個
빠지안코進呈합니다
特賣區域 朝鮮全道
宮內省御用達 野田醬油株式會社
F-27

資生堂洗濯石鹸 자생당빨내비누

本品의特徵!
一、最高의品質、最低의價格
一、芳香、거품이極히佳良
一、손을안것칠게、살결은안傷하게
一、洗濯後에不快한내음이안나고쓰기조타
東京·銀座 資生堂

北朝鮮과 東北滿洲 (七)
去益加重하는 經濟的重要性
四、北朝鮮產業
三、鑛業

北朝鮮의 山野는자못廣大하고 古紀層岩이 豊富하야到處花崗岩及花崗片麻岩으로되어잇는바 이花崗岩과 古紀層岩과의相互接觸하는곳에 흔히鑛脈이잇서、鑛產資源의埋藏은 無盡藏이라稱하다 그러나 位置가偏僻하야 探鑛調査가 充分치못하얏기때문에 當局도 空然히遺棄된 狀態이엇스나、近年財界變動에 基한金價暴騰과 當局의產金保護政策及產業交通의發達과相俟하야 鑛業界는異常한活氣를呈하야 探鑛開發又는事業擴張等 旺盛을 極하고잇다

▲鑛區及鑛產物 (昭和八年)

◇咸鏡北道

種別	鑛區	產額
金	二八	二八六、三二八五匁
青化金銀	一	二七、〇〇〇匁
銀		
銅		
金銀銅鑛	二	一一〇〇貫
石炭	三	三〇、一〇〇貫
雲母	一	一四、〇〇〇貫

◇咸鏡南道

種別	鑛區	產額
金	六八	三七七、三九一匁
砂金	一九	四一、四〇五匁
鐵	一	一四四、三一三噸
石炭	一	三〇〇、〇〇〇噸
雲母	一	二、三六九貫
黑鉛	二	七、〇三六噸
螢石	一	一〇、〇〇〇噸
滑石	一	六六〇噸
球石	一	八〇〇噸
硅石	一	一〇〇噸
無煙炭	一	一六、三六八噸
計	二四	

主要鑛物及其鑛業

金銀鑛 南道의金鑛은 鑛產物中首位를占하야 道內到處에서 產出하고 就中水興、新興、定平、長津、安邊의各郡에 가장만흐며 北道에는 慶源郡祠德面及東原面에亘한 慶源砂金地、會寧郡雲頭面、西上面、昌斗面의會寧金鑛地及 富寧郡靑岩面의 淸津金鑛地等이잇다 現在또한 富寧郡의東部一帶金鑛地가有望視되고잇다

鐵鑛 朝鮮의鐵鑛埋藏은 現在利用價値를有한것이 約四億一千三百六十九萬噸이라는데 그中四億五百萬噸은 北朝鮮에埋藏되어잇다。即 咸鏡南道利原郡의 一百萬噸同端川郡의四百萬噸及咸鏡北道茂山郡의 四億噸이고또 端川郡의奧地、鏡城郡의奧地地方에도 豊富히埋藏되어잇는模樣이나 調査가不充分하야明瞭치안타。

茂山의 鐵鑛은 品質이優良하야滿洲國鞍山의것에 比較하야도모든點에잇서 優越하야粉碎選鑛할時는넉넉히六十%程度의것을어들수잇다고 하는데 그比較表를보면如左하다。

品名	茂山	鞍山
鐵分	四〇%	三七─三八%
鑛石種	磁鐵鑛	磁鐵鑛、赤鐵鑛의混合
選鑛에對한粉碎의程度	一〇메쯔	七〇메쯔以下(二〇메쯔시는十分之一時平方)
燒結	必要無함	必要

即、鞍山은 赤鐵鑛이 잇기때문에 燒燒치안호면 磁石選鑛에 不適하나 茂山은 僅僅 十메쯔시로 粉碎하야 直接磁選하야鐵分六十五%로 할수잇고 또 茂山選鑛粉을 燒燒하야 直接製鋼用海綿鐵을 製造할수잇는 便益이잇다 (繼續)

朝鮮米生產費問題紛糾
農林省偏見其極 朝鮮米不利에만置重
卅七圓卅錢過高論認識不足
今後歸決如何重視

今後米價對策에잇서 重大性을 띄인 朝鮮米生產費問題에關하야 東京에서 委員會를 열어가지고 審議中이든바 別報의東京電과가티 畢竟에는 朝鮮總督府調査의石二十七圓三十錢의米生產費는 不當한數字라는 理由알에 그資料의再提出를 要求하는形式으로써 同委員會는無期의延期를 보고말엇다 이와가티 朝鮮米生產費二十七圓三十錢에對하야 高價라고하는理由는 다음과갓다 即

▲昭和八年度朝鮮米生產費를 拓務省에서 二十四圓九十錢으로 提出한것이 그처럼一年間에 六圓四十錢의高價로 되엇다고함에 異議를 가지고 또는 政友會調査로도는 廿七圓卅錢보다 十六圓七十三錢에 不過한 큰틀님의數字가 發表되엇스며 特히 農林省調査로도 廿七圓卅錢보다 十圓程이나 低位의生產費數字라는點等을 가지고 朝鮮總督府로하여금 資料의再提出을 하라는것인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農林省과 其他諸方面이 거이 傳統的이라고 볼수잇는 朝鮮米 差別態度에서 出發된 結果이라고 말할수 잇스며 딸하서 이번의 委員會를 無期로 延期한것은 純然히 朝鮮米生產費를 二十七圓三十錢以下의 低位로 即不利한 數字를 나타내이게 하라는데 置重한 一手段으로 볼수잇나 그럼으로 이推移如何로는 朝鮮米에 對한 根本的重壓을 加케되는 惡材料가 될念慮가 잇는마큼 一般의注目을 끄은다

資料再提出을要求
廿七圓卅錢은意外高價 今月末或은來月初再開
小委員會를中止

【電通東京電話】外地米生產費調査에關한 米穀生產費調査會는 外地側의提案을 總會에附議하야 目下小委員會에서 調査中으로 그內容은 極秘에부치나 朝鮮總督府로부터 提出한 昭和九年產米의 生產費는 石二十七圓三十錢이라는 意外의高價를 示하야 農林當局의所見과는 甚大한 懸隔이 잇슴으로 議論이 紛糾되야 小委員會는 五日로써 爲先 中止하고 다시資料의提出을 求하야 研究한뒤 今月末 또는來月初에 再開케되야 外地米生產費의 決定은 七月中旬頃에 보게 될모양이다 從來昭和八年度朝鮮米에 對하야 拓務省에서 提示한生產費는石當二十四圓九十八錢이며 政友會의調査에依하면 亦是十六圓七十三錢이다、事情은 달으나 日本內地米九年度米生產費二十七圓九十五錢을 比較하야도 이번에 朝鮮側에서 提示된것으로매우 僅少한差를示함에 不過하고日本內地側으로서는 朝鮮側이生產費算出에잇서 過大한計算을 한것이라고한다

事實上으론 無期의延期
拓務省、外地側意向

【電通東京電話】外地米生產費問題에 關聯하야 農林、拓務兩省은 再次對立키에 至하야 產費調査會는 事實上 無期延期인데 右에對한 拓務省과外地側의 意向은 大體如左하다

一、今回調査會에 提出한調査資料는 農林省과도協議한後朝鮮八百七十戶 臺灣六百戶의 經營規模中位에잇는 農家를基礎로서 調査한것으로 其間作爲的으로生產費를 計上한것이 全然업고 모다實際에 應하야 調査한것이다

一、右當生產費는 日本內地米의 그것에 比할時는 割高이나段當으로 이것을볼時는 日本內地米의半分에 不過하다

一、그런데 農林省이 日本內地米生產의 調査材料엔 提出을 拒絶하면서 쓸데업시 外地米生產費의 不當割高만을論難할은어데에根據를 置한것인지 殆히 解할수업다

一、生產費의 決定은 義務的見地를따라서 할것임에不拘코農林省이 이것과달은 見地에서 할것을 하고저함은絕對로反對이다

自治管理時 低價買上目的
農林局側은大奮慨

外地米生產費調査會는 九年度朝鮮米生產費가 過大하다는農林省과總督府의 意見懸隔이甚하야 小委員會는드듸어 八月까지休會하기에 至하얏는데 右에對하야總督府農林局은

日本內地側이 固守하고잇는昭和六年度의 朝鮮米生產費는調査當時의 目標가 全然相異하야 日本內地農業移民을 誘致하기爲하야 調査한것임으로政策을織入하야 相場히低價되것이 事實이다 調査農家도目的地의 僅히一戶에對한 調査에不過하얏다 當時는 正租一石當生產費를 二倍한것을 石當生產費로서 算出한것으로 精玄費는勿論農倉費、諸材料는包含되지안코 土地資本利子도 年八分을豫想하얏스나今年은 類地小作料를土地資本利子로서 算入한것만으로도그差額은 當然크다 從하야生產費算出의參考資料도안된다 委員會에서의質問要點을보면學理的根據에對하야서는 조곰도觸치안코다만如何히하면 朝鮮米生產費를低價로할수잇슬가를 窮하얏스니 生產費의正確을目的으로한것이라고 할수업다 一步進하야생각하면 自治管理案實施의時 朝鮮米買上價格을 低價로하기를 目的으로한것이라생각한다 라는 見解를가지고 根本에잇서觀念的으로差가잇는以上 妥協은絕對至難으로 보인다한다

朝鮮金融界趨勢
金利가一般的平準化

日本內地、朝鮮經濟의接近에 따라서 金融界도 漸次 平準化傾向을示하야 日本內地金融界의動搖가 從前에比하야 顯著히 朝鮮內金融界에 影響케되엇다 할만하다 日本內地金融界는 金融恐慌을一轉機로 預金貸出의中央集中主義를緩和하야大藏省의地方銀行育成의 方針에基하야 地方銀行을 擁護하는風潮가顯著케되엇는데 地方樞要의都會에支店을두는 中央의一流諸銀行은預金貸出의 利差縮少와 所持資金의有利한運轉難으로 最近各一流銀行이 모다地方으로 貸出方針을緩和하야 從來보다多少積極的으로 進出하든 結果地方銀行은 一流銀行支店에

預金 을빼앗기는外에 貸出도 不利한 競爭을하게되는情勢알에잇다 이것은 日本內地의地方銀行經營難의 重大原因으로 되어잇는데 朝鮮에서는 從前이와가튼金融界의動搖에 依하야 直接큰影響을안밧는것이다 그런데 最近은 日本內地金融市場의 接近과同時에 日本內地朝鮮金利의 動搖가直接朝鮮內에

波及 하야 朝鮮內金利의低下를助長하야 朝鮮內의日本內地一流銀行과當地一流銀行의金利競爭은 日本內地一流銀行의地方進出方針樹立後 特히顯著케되야 그餘波를바든當地二流銀行은 採算上 不得已比較的無競爭地인 地方의不動產에投資하야 均衡을保持하고 朝鮮內銀行은 日本內地銀行과 가튼預金歡迎가 업슴으로 安心하야

地方 不動產에 投資하는바 이와가튼金融情勢가 果然健全한與否는 別問題로 朝鮮內金融統制問題에 對하야 一石을投한것이다 그러고 朝鮮內의日本內地一流銀行의 金融方針은 嚴格한擔保規程에 依하고主로 商業手形과 有價證券擔保에 融資範圍를

限定 하나 金利의點으로 當地銀行을 놀니고잇서 結局 二流證券도 一流證券과가튼 金利로 融通한다는 不自然한現象을 招致하야 當地銀行의 採算難을 益甚케하고 間接的으로는 二流當地銀行의 地方進出의 金融을 보게되야 全朝鮮的金利의 平準化를 促進하는터이다

米日爲替暴騰

【十五日發聯合】四日의米日爲替는 前日에比較하면 賣二十九弗二十五仙으로 二十仙高 買二十九弗二十仙으로 十九仙高

▲東京爲替(五日)
對米 賣二十九弗 買二十九弗四分一
對英 賣一志二片八分一 買一志二片三十二分五

▲大阪爲替(五日)
對米 賣二十九弗 買二十九弗八分一
對英 賣一志二片三十二分三 買一志二片三十二分五

「水曜會銀建價」
七十八圓四十八錢六厘
◇…五月十日以來低價

【東京電話聯合】四日의 倫敦銀塊市場은 主로中國投機側의賣로 現物先物共히 一片의急落되엇고 紐育銀塊市勢도 一仙八分三의低落이엇슴으로 五日에 水曜會는 銀建價를 前日보다 二圓三十九錢七厘引下하야 一키로七十八圓四十八錢六厘로곳치엇는바 右는 五月十日以來의 低價이라한다

殖銀米資殘額
千五百萬石

殖銀取扱五月末現在 米資融資高는(單位千圓)

木倉	四、三〇一
農倉	三、六五五
其他	二、八五四
合計	一五、[illegible]

로前月末에 比하야 四百三十萬三千圓、前年同月에 比하야 六十五萬四千圓의減少를보게되엇다

北鐵代償 物資對策
朝鮮貿易協會協議

朝鮮貿易協會에서는 四日에 열린理事會에서 北鐵代價物資對策을 다음과가티 決定하엿다

一、北鐵代價物納入에 關한件은 總督府商工課長으로부터報告가잇서 工藤理事가 對內及地方商人과 協議한結果를 報告한뒤 協議하고 工藤理事가十日頃渡東하야 各商人으로부터 提出한事業槪況을 鮮滿貿易代表에 紹介하고 拓務、商工各省의意圖와 日本內地業者의態度等을 充分히 調査하야今後의 對策을講究할터이다

京城銀價少弱

京城市中銀市勢는 五日에 賣二十九錢五厘 買二十六錢으로前日보다 賣는五厘、買는 一錢의低落이엇다 그런데 小物(裝飾品가튼것)은 一匁二十三錢買이라한다

끌덴貨의 切下流說
딴찌히政府意向

【電通딴찌히四日發】딴찌히政府는 近間끌덴貨의平價切下를 할意思가잇다는說이 流布되어一般의不安人氣가크고 外貨買로大口의 預金引出이잇서 市中의 各銀行爲替市場等은先般來事實上休業狀態이라한다

米倉在米數量
八十六萬餘石

米倉會社의 二日現在在米高는八十六萬八百二石으로 前月에比하야 十五萬六千五百石의 減少되엇다(以下單位石)

釜山	一六七、一九四
馬山	五、九四一
麗水	五、四七二
木浦	八二、七六五
群山	二二一、九九六
江景	一一、八六五
仁川	二四七、四二九
鎭南浦	一二七、四二〇

朝取一分減配
重役會에서內定

朝鮮取引所에서는 五日 午前十一時부터 重役會를 열고 今期決算을 附議한結果 一分減配의 八分으로決定하고 廿五日 午後四時부터 總會를 열터인데 益金處分案은 알에와갓다

當期總益金	二六九、五八一圓
同 損金	一四九、九一二
差引純益金	一一九、六六九
前期繰越金	六、七五六
計	一二六、四二六
此處分	
法定積立金	七、〇〇〇
別途積立金	七、〇〇〇
職員退職基金	八、〇〇〇

今日財界 (五日)

◆米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白三等米 一石 [illegible]
京城一等白米(仁川改良) 一石 [illegible]
正租(仁川改良) 一斤 [illegible]

◆市中金銀價
金 一匁 [illegible]
銀 一匁 [illegible]

◆株
東新 [illegible]
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商品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ゴム現 [illegible]

經濟界消息

取引員獎勵金 一、三三九二
株主配當(年八朱) 九六、〇三四
後期繰越金 一、九九八

○朝鮮信託重役會＝朝鮮信託에서는各支店의決算이 끗낫슴으로 七、八日頃重役會를 開하고 利益金處分、下期의事業計畫等에 對하야協議하기로되엇는데 配當은六分据置 總會는月末開催할터이라고

○農民紀念日擧行＝朝鮮農會主催의農民紀念日은 六月十四日水原農事試驗場에서 擧行키로되엇는데 總督府에서는 總督、總監以下 出席할豫定이라고

株式 戾賣物로 再落

前場少弛

昨日 急反撥의뒤를 이어 今前場은 佛新內閣의總辭를 듯고 法貨前途에 對한 不安이 加重하야 氣迷이고 諸株一息裡에 少弛하야 大引이엇스니 即昨後引에 比하야 東新五十錢低인 百三十六圓九十錢 日產八十錢低인 七十四圓 大新四十錢低인 八十九圓十錢 朝新十錢低인 二十五圓三十錢에 各大引

▲大新 八六〇(寄) 八六 八九〇 八六〇(引)
▲東新 一三六〇(寄) 一三六 一三六〇 一三六〇 一三六〇(引)
▲日產 七四〇(寄) 七四〇 七四〇 七四〇(引)

後場再落

後場은 東新百三十六圓四十錢 日產七十三圓丁 大新八十八圓四十錢 朝新二十五圓三十錢에 日產부터 또떠러저 後再落裡에大引

外國財電區區

今五日入電海外財電은 區區하야 即米日爲替는 二十九弗十八仙으로 十四仙暴騰 倫敦銀塊七十二片一로一片低 紐育銀塊三十二仙二分一로一仙八分三低 倫敦金塊七磅一志十一片 米棉一圓九十五錢高

反撥벌서一巡 續騰力이不足

昨日前場後半의 急反撥은 말하자면 昨前場前半의 最後的突込과振出에 依하야 過賣反動이 月餘만에 急스럽게 示現되여지나지안흔것으로 東株取引員融資成立說가튼것이 作用한것이 事實이나 昨日까지의 低落으로써 完全히 大底入되엇다고는 速斷키難한것이잇고 東新、日產의 五、六圓程度反騰은 當然한일이엇다 그러나 一巡된모양이고 이로써 反撥은 벌서 一巡되엇다고 보아야할것이다 月初高價에 比하야 三分一戾 半價戾가튼것을 目標로 할수도 잇겟스나 그것도 果然잇슬지 가가조심되며 설령중간上進이잇드래도 內外의根本的不安이 進行되는限은 假買時代로 轉換되엇다고보기어려운情勢이엇다

佛新內閣總辭
法貨前途重視

財政獨裁案을 下院에提出하얏다가 否決當한『부랑』前內閣의뒤를이어出現한『부이송』新內閣도四日에 財政獨裁案을 下院에提出하얏다가 否決되고 四日만에 總辭職을하야 今後新內閣에 對하야 [illegible] 苦心中인모양이데 大衆의 意見과가티 平價切下를 拒否하려고 할지 今後의 法貨는 도리어 國際爲替에 影響되어 [illegible] 世界的不安材料가 [illegible] 昨日急反撥되엿든市場도 今前場은 이런것들로 人氣를 沮喪케함이 크다

整理進捗程度 今後「코스」如何

歐洲金融界의崩壞情勢、米國財界動搖는 依然不安材料로서 前途를 悲觀할수업스며 어떤것들이安定되기까지는 亦是抑壓材料로서 影響될것이勿論이나 그보다도 國內的으로크게 問題가되어잇는것은 『인푸레』政策의 整理期에當面한 그것으로 過去二個年의『인푸레』景氣로 依하야 規模를擴大식히고 發展하얏든產業이 反動的苦痛을 맛고잇는것이 現下事情이다 그럼으로 結局에잇서는 이反動을 견듸어내고 發展의 實效를 나타내일것이나 더큰反動에 際遇코말것이냐가 最大問題로서 輕斷을 不許하는바 株式은 이런情勢下에잇서 昨年九月부터 反動時代에入하야第二次大整理가 昨前場까지에 一段落되것인지 또는더整理가잇슬것인지充分한 研究가必要할 모양이다

實物前場取引
賣買高百六十枚

▲滿洲세멘 七、六〇 ▲日滿아루미 五〇 ▲北鮮製紙 一四〇 ▲證券金融 三五 ▲日滿亞麻 一〇〇 ▲朝鮮製鍊 三

市場六感

株 모든惡材料를最惡境遇까지豫想하고 常識論外로 한달以上을 내리떠러지던市勢도 昨前場으로써一段「스톱」되고 急反撥을보엿스나 ▲內外諸情勢가諸株의前途를樂觀에 誘致할것이업슴으로 續騰力缺乏 反撥後一息이 또 어데로갈것이냐? ▲僥倖히昨前場低價를買한小口들은 今前場에 빨리利喰退却하느라고 奔走 ▲超理論的으로딸지안혀도 큰反撥은 期待하는便이적은모양 조흔것까지 貿매한反動이 터잇슬지도 모르나 딸어서조흔것當然히딸어야할것을 딸엇던것은 恢復될氣力이 적을것이겟지

米 一晝夜를 繼續하든 好雨는 今朝부터 恢復되어 九萬里長天에 夏無半點一片雲▲이와가티 天氣가 晴朗하야 可謂爲永如天魚躍于淵의 快感을 呈하는 듯하다 그러나 海岸通一隅에는 警察의 檢擧旋風이 突起하야 合百軍의 陣營가 總崩落을 當하엿다▲그러나 所謂大將格은 그機密을 미리알엇든지 벌서 어데로 逃避하고 微微한 幾兵만이 警察網에 걸리엇다고 이야말로 魚網之役에 鴻則罹之엇다▲그런데 所謂 大將格이 警察의 機密을 알엇다면 이 警察의 不注意한 點도 업지안커니와 逃避한 大將格은 또다시 徵兵令을 노아 作黨을할모양이니 警察의 不安은 依然未晴 ▲水害는 防其源이든 그根源을 막지안코 岐流을막은 細害이니 汎濫한 洪水는 또다시 襲來할것은 不言可想 ▲何如間賭博場擧場과가튼海岸通은 마치 風靜浪息과 如히바로 神聖한市場으로 恢復되엿다 果然警察의高壓力이 宏大하군

期米 二十七圓恢復

前場伸悩
昨後場阪地二十九圓二十一錢止와 共히二十六圓八十八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二十九圓二十七錢인 六丁反高를擲하고二十六圓九十二錢인 四丁反高로場을始한後 阪地六節二十八錢으로 二十四錢까지 下押하엿다가結局二十五錢에 止場한율作하야八十六錢의 小押으로 結局七錢에場을止하엿다

後場上進
後場은二十六圓八十九錢에三丁高로 始場後節節上進하야 三節二十七圓臺로올라 五節七圓十錢의好勢이고 別標가리止場하다

買賛成은不安 四圍情勢보면

新甫入限이發會한後 三、四十丁의反落을示하엿스나 圈內에入하야 因而保合圈內에入하야 落底을許하는 調方向未定의狀態를 무할뿐이다 昨今의步調로보아서는 一段反撥을示할도하나 그러나이러타할만한强材가업고 또可所할만한弱材가업다 그러치만 臺灣第一期米도今月부터移入되어 今般의降雨로植付無難의 樂觀을呈하게되엿스며 又는政府의 根本方針이 高米價를 防止하려함에 重을置하고잇슴으로 남어지百五十萬餘石의古米는 米價가昂騰하는때에 突然斷行하게될것임으로 買方으로서警戒를要치안흘수도업다 四圍의情勢如是함을보면 찰아리高價를待하야賣方針을樹할지언정 絕對買安心은 하지못할것갓다

東京國債市況

【電通東京電話】軟調되는株界의 不況으로 買氣全혀萎縮되어市況保合이다 ▲甲五分利不申 ▲二回四分利不申 ▲一回四分利不申 ▲佛貨準備一八五、七〇

持米側의狼狽
依然賣惜乎

本年은 凶作後이만치 前途米價가破天荒의 高價를示할이라하야 客年米小時代부터 思惑側의投機的買占物이 多하엿든 關係로農家의所持보다도 思惑家의 手中米가多하야 集散市場의 停滯米가不少한모양이다 그런데 昨今의米價를 打算하여보면 持米側의 損害가업지아니함으로 現今米價에는 賣却할수업게되어 自然時機를 待하는形勢이다 그러나 朝鮮米價가 日本內地米價보다 割高임에따라 日本內地의買氣는 [illegible]

堂島前場保合

【大阪電話】東京、山種、三木은 今朝先限을連節買進하고 特히山種의買玉은全國을通하야 三、四十萬石이라하야 그程度를不可侮이오 賣方手中의 田中貞과對抗할것이라하는데 三木도最近은八萬石의買玉이잇서 今後의態度가 注目된다

買方 三木、山種、地場正米側、中東側、朝鮮側、高橋乘換株式側、地場小口側、東京側一派、地場强氣側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金.銀.白金
徳
京城德力
地方注文代金引換發送 貴金屬賣買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 3939 振替京城 234

商況 (五日)

以下 出荷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小堅 (定期의小康을移하야 常用小口側으로買氣旺盛하고) 五錢高唱인 丸仁三等二十六圓九十五錢 四等二十六圓七十五錢 一等白米二十圓

仁川小堅 定期의 弱含을보고 日本內地의 入注가있서 買氣散見이어 取引은閑散히 進捗되고 人氣는幾分 小堅裡의推移되어 丸仁三等二十六圓五十五錢 四等二十八圓七十五錢 一等白米十一圓六十錢

釜山不味 市場賣物二千叺 小口이나마 前現의賣物散見이오 日本內地注文이 一向업서目前諸軟材料를考慮하야 朝鮮物買로取引이겨우 八六五叺인 角フ三等二十七圓六十錢四等二十六圓八十錢一等白米十一圓八十二錢 四等二十七圓

大邱釘付 依然不賣不買의 人氣로低價付의地方入注가不合이오 夏枯閑散同樣의場面에陷한角フ三等二十七圓六十錢四等二十六圓八十錢一等白米十一圓三十五錢

群山閑況 殆著一幅 產地賣物이어고 地場持米側도待機의形勢로 場面에全혀賣物皆無인바日本內地入注不振으로 當用小口의 買氣뿐이오 市場은閑散裡에保合인 秀ク三等二十七圓三十五錢四等二十七圓二十錢 一等白米十二圓四十錢

木浦軟弱 依然原料高로所持側은賣澁이나 日本內地入注 杜絕로 定期의頑强을듯고도 買付치안어 目前挪下念慮로 一層低價를생각하게되어 氣配一氣로 二十錢崩인 丸木浦町三等二十七圓四等二十七圓二十錢

南浦焦付 所持側은 出치안의降雨에 不拘코買物을 前日來로 日本內地注文이 소하나 場面이 全혀閑散에陷한 尾三等二十七圓五十錢四等二十七圓三十五錢 一等白米十一圓三十錢

金融 (五日)

◆海外經濟◆ (4日) [illegible]
◆朝鮮銀行券◆ (4日) [illegible]
◆日本銀行券◆ (4日)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價入價◆ [illegible]

正米 (五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五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지카코期變◆ (4日) [illegible]
◆鑛油沖價◆ [illegible]
◆鰯搾粕沖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五日)

◆朝取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期米 (五日)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長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商品 (五日)

◆大阪綿糸◆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